

제18기 교사 및 시민 대상 역사아카데미

박물관 전시로 보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

2016. 9.29~10.27 매주 목요일 19:00~21:00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목 차 〉

서울의 백제역사와 박물관 전시	<u>09</u>
조선시대 한·중간 서적교류	<u>31</u>
활자의 나라, 조선	<u>45</u>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	<u>63</u>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u>79</u>

제18기 교사 및 시민 대상 역사아카데미

- 주제 : 박물관 전시로 보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 기간 : 2016. 9. 29 ~ 10. 27(매주 목요일) 19:00~21:00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11층)
- 역사 아카데미 주제 및 강사

No	날짜	강의주제	강사
1강	9/29	서울의 백제역사와 박물관 전시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
2강	10/6	조선시대 한·중간 서적교류	정호훈 (서울대 규장각)
3강	10/13	활자의 나라, 조선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4강	10/20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	박수희 (국립고궁박물관)
5강	10/27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제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서울의 백제역사와 박물관전시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의 백제역사와 박물관전시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

1. 서울의 선사와 백제역사

서울은 조선시대에 새로 만든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아니다. 서울은 선사 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먼저, 면목동·역삼동·가락동·암사동·상일동·오금동 등지에서 구석기시대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한반도의 구석기문화를 보통 전기(70만년전~13만년전), 중기(13만년전~4만년전), 후기(4만년전~8천년전)로 구분하는데, 한강 상류의 단양·제천·충주·양구·춘천·양평 등지에서 전기부터 후기까지 구석기 유적이 고루 발견되었으니 서울에도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기원전 6천년경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토기를 만들어 썼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지금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도 사람들이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었다. 그들은 강변 대지에 모 죽인 네모꼴(抹角方形) 움을 파고 기둥을 세워 집을 지었다. 움집은 대개 모래바닥을 파고 지었는데, 지름 5m 안팎, 깊이 1m 크기이다. 집 안에서는 각종 토기와 석기 외에도 기둥구멍, 지붕의 재목, 화덕 자리 등이 발견되었다. 가장 아래문화층의 방사성탄소연대는 기원전 5,175년까지 올라갔으며, 그 위층에서는 후기 빗살무늬토기와 청동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이 계속 살던 마을터인 것이다.

기원전 10세기 무렵, 한반도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섰다. 청동기문화는 고인돌(支石墓)·돌널무덤(石棺墓)·돌무지무덤(積石塚) 등의 무덤과 비파형동검(요녕식동검)·세형동검(한국식동검)·민무늬토기·반달돌칼·돌화살촉·구리거울(銅鏡)·구리종방울(銅鐸) 등의 유물이 특징이다. 그동안 한강유역에서는 고인돌과 세형동검·민무늬토기·반달돌칼·돌화살촉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서울에서는 가락동·명일동·역삼동에서 청동기시대 움집을 발굴 조사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하천 옆의 구릉 위 또는 야트막한 산의 경사면에 움을 얹게 파고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집을 지었다. 크기는 대략 15~40㎡로서 신석기시대 움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깊이가 30~50cm로서 많이 얕아진다. 가장 많이 출토된 유물은 민무늬토기이다. 한강유역의 토기는 함경도 방면의 민무늬토기·구멍무늬토기·붉은간토기(紅陶) 영향과 평안도 방면의 팽이모양토기 영향이 모두 나타나 새로운 혼합문화임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 기원전 4백년 무렵부터 이후 약 3백년간을 초기철기시대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많다. ‘초기’라고 이름붙인 것은 이 무렵부터 철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청동기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청동기는 세형동검과 줄무늬거울(細文鏡)이다.

초기철기시대 이후의 또 다른 3백년간을 원삼국시대 또는 삼한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구려·백제·신라가 본격적으로 정립하기 전의 단계이며, 고고학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고총고분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원삼국’이라는 이름이 워낙 모호하고 편의적이므로 『삼국사기』에 근거해서 그냥 삼국시대라고 하거나 차라리 삼한시대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기철기시대와 삼한시대를 합해 6백년간을 단순히 ‘철기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무렵의 철기문화유적은 압록강·대동강·낙동강·섬진강유역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한강유역에서는 사례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에 활발히 활동했던 고조선(古朝鮮)·낙랑군(樂浪郡)·한(韓) 등의 정치세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북쪽의 고조선·낙랑군과 남쪽의 삼한 세력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형성되면서 중간지대인 한강유역이 힘의 공백지역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삼한시대에 한강유역에서는 사람들이 지금의 풍납동 일대에 3겹의 환호(環濠)로 둘러싼 큰 마을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깥에 더 큰 성벽을 쌓았다. 어느덧 큰 나라를 이룬 것이다. 나라 이름은 백제(百濟)이다. 백제의 대표 유적으로는 송파구의 풍납토성·몽촌토성과 석촌동고분군이 손꼽힌다. 특히 지금의 풍납토성은 백제의 초기 수도인 하남위례성을 고쳐 쌓은 것으로 추정되며, 석촌동고분군은 백제의 왕과 귀족 등 지배층이 많이 묻힌 일종의 국립묘지이다.

백제 왕족과 귀족에는 부여·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다. 증거는 여러 가지이다. ① 건국설화에서 백제시조 온조왕은 고구려시조 주몽의 아들이다. ② 472년, 백제의 개로왕이 북위(北魏)로 보낸 편지에서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고 썼다. ③ 『삼국유사』에는 백제왕실이 부여에서 나왔으며 왕의 성씨가 원래 해(解)씨였다는 기록이 있다. ④ 백제 왕실의 성씨는 부여(扶餘)씨이다. ⑤ 538년에 사비(泗水)로 도읍을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바꾸었다. ⑥ 백제 위덕왕이 스스로 고구려와 성씨가 같다고 말했다. ⑦ 중국 역사서에는 백제의 언어·복장이 고구려와 같다고 적혀 있다. ⑧ 백제의 왕실무덤도 고구려와 같은 돌무지무덤이다.

백제는 언제 세워졌을까? 『삼국사기』에는 기원전(BCE) 18년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석촌동·가락동일대에 분포하던 움무덤(土壙墓)과 돌무지무덤은 대개 기원후 2·3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무덤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기록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마침 중국 역사서 『삼국지(三國志)』 「동이전」에는 3세기 중엽에 마한(馬韓)이 50여개의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하나가 백제국(伯濟國)이라는 기록이 있다. 백제국이 커져서 백제(百濟)로 변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그에 따르면, 3세기 중엽까지도 백제는 여전히 소규모의 성읍국가 단계였다고 한다.

백제는 국가 초기에 북쪽 낙랑군과 대방군의 견제를 끊임없이 받았다. 특히, 기원전 108년에 설치된 낙랑군은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한때 25개 현(縣)을 거느렸던 한(漢)나라의 큰 군(郡)인데, 주변의 토착세력에게 중국 벼슬 및 의복·장식품 등을 나눠줌으로써 중국적 세계질서를 확산시켰으며, 저항세력을 가차 없이 공격하였다. 204년경

황해도지역에 새로이 설치된 대방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한군현과 가까운 한강유역은 강한 견제를 받았으며, 초기의 백제는 중국의 거대한 힘과 문화에 눌려 여러모로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백제의 도전은 거세졌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고이왕(234~286)은 낙랑군이 고구려와 싸우는 사이에 낙랑군의 변경지역에 사는 주민을 잡아왔다가 돌려준 적이 있으며, 책계왕(286~298)은 전쟁 중에 사망하였고, 분서왕(298~304)은 낙랑의 서쪽지역을 공격하여 빼앗은 일 때문에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낙랑군이 자객을 보내 백제에 보복했다는 것은 예전처럼 직접 전쟁을 통해 제압하지 못할 정도로 백제가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313년경 고구려에게 낙랑군이 멸망하고 곧이어 대방군마저 사라지자 백제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강력한 견제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지만, 그 못지않게 국가 경영에 필요한 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중국 역사서 『수서(隋書)』에는 “백제인의 출신이 잡다하여 신라·고구려·왜(倭)·중국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산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의 중국인에는 아마도 낙랑·대방군 출신이 많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와 낙랑·대방지역 소유권을 다투었다. 근초고왕 24년(369), 백제는 지금의 황해도 배천지역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이끌던 2만명의 군대와 치열히 다투는 끝에 5천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이로써 백제는 한강유역이 배타적 안전지대임을 확인하는 한편, 황해도지역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근초고왕 26년(371), 백제는 마침내 3만 대군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전투는 고국원왕을 죽이고 물러나는 선에서 정리되었지만,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군사적 우위를 분명하게 과시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군사적 우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4세기 말엽, 백제는 고구려의 광개토왕(391~412)이 이끄는 군대에게 연거푸 크게 지며 북방의 많은 영토를 잃었다. 이에 백제는 군사원조를 얻기 위해 397년에 태자 전지(腆支)를 왜(倭)에 인질로 보내는 등 절치부심하였으며, 국력 배양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중국과의 외교 폭을 꾸준히 넓혀 나갔다. 그리하여 5세기 후반의 개로왕(455~475) 때에

이르면 더 강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고구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475년, 백제에 큰 위기가 닥쳤다. 고구려 장수왕이 군사 3만명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백제를 공격해 수도 한성(漢城)을 함락시킨 것이다. 당시 한성은 북성과 남성 2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차례로 함락시키고 개로왕과 그의 가족을 잡아 죽였다. 북성은 지금의 풍납토성, 남성은 지금의 몽촌토성에 비정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가 침입하자 왕자인 문주가 신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한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읍을 웅진(熊津)으로 옮겼다고 한다. 백제가 도읍을 옮겼다는 것은 한성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한성 포기는 한강유역 상실을 의미한다.

지금의 서울을 손에 넣은 고구려는 단숨에 한강유역 전체를 정복하였다.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는 5세기말경 고구려가 소백산맥 일대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한강유역 전체를 행정구역으로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가 이 지역을 어떻게 통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지금의 서울지역을 남평양(南平壤)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남쪽의 제2 수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4세기 후반의 백제영토(추정)

2. 한성백제박물관의 전시구성

한성백제박물관은 시립박물관으로서 서울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고 서울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명을 안고 있다. 특히 서울이 고대국가 백제의 수도였으며 고대부터 이미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서울시민과 관람객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큰 목표이다. 목표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전시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백제의 한성도읍기를 중심으로 서울의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의 역사를 개괄한다.
- ② 풍납토성·몽촌토성·석촌동고분군 등 주변의 백제 유적과 연계한다.
- ③ 생활문화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고 충족시킨다.
- ④ 유물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교육기능을 강조한다.
- ⑤ 모형·그림·영상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 ⑥ 섹션별로 전시 수준을 다르게 설정해 폭넓은 관람객층을 확보한다.
- ⑦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전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성백제박물관의 상설전시공간은 로비와 3개의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로비는 서울이 백제 왕도임을 여실히 증명하기 위해 풍납토성 성벽을 절개하고 단면을 그대로 옮겨온 「성벽 단면」과 성벽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이며, 상설전시실은 시간 흐름에 따라 (1)서울의 선사와 백제의 여명, (2)백제의 탄생과 한성도읍기 문화, (3)삼국의 각축 등 3실로 구분하였다. 3개의 상설전시실 가운데 가장 큰 곳은 서울의 백제문화를 다룬 제2전시실인데, 백제의 중앙문화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 및 중국대륙과 일본열도의 관련 문화까지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다른 전시실과 달리 세부내용을 시간별 전시가 아니라 주제별 전시로 구성하였다.

한성백제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전시주제

전시실명	Zone	Booth
로 비	서울 = 백제	인류의 발자취_세계사 연표
		아! 풍납토성
프롤로그	역사 속으로	크고 넓은 강, 한강 / 사람과 도구
제1전시실 (서울의 선사)	문명 이전	불의 발견_구석기문화 / 농경 시작_신석기문화
	백제의 여명	권력 출현_청동기문화 / 여러 나라의 성장
제2전시실 (왕도 한성)	백제의 건국	나라를 세우다
	더 큰 나라로	위례성에서 한성으로 / 땅을 잇고 물길을 열다 백제를 빛낸 사람들
	백제사람의 삶	동명사당 / 어떻게 살았을까_의식주, 사상·풍속 / 영원히 사는곳_무덤 / 철, 강한 나라를 만들다
	글로벌 백제	백제, 바다로 / 동아시아를 품다 / 백제의 배
제3전시실 (삼국의 각축)	삼국, 한강으로	삼국, 한강에서 만나다 / 고구려, 아리수를 건너다 / 신라, 마침내 한강으로
	한성, 그 후	다시 강한 나라가 되다_웅진 / 꽃을 피우다_사비
에필로그		서울, 세계로! 미래로!

○ 풍납토성 성벽단면

박물관 로비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상징전시물은 풍납토성 성벽이다. 성벽 아랫단의 너비 약 43m, 높이 11m 이상으로 추산되는 풍납토성의 성벽 단면을 마치 생선회 뜨듯 얇게 떼어내 전시하고 있다. 풍납토성은 백제의 도성임이 분명한 유적이며 한성백제박물관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유적이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모습은 그 역사적 위상을 전하기엔 너무 초라해서 자세한 설명을 반드시 덧붙여야만 겨우 원래 모습을 살짝 짐작할 수 있다.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의 풍납토성 성벽 단면은 풍납토성의 역사적 위상을 말없이 설명하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의 풍납토성 성벽 단면전시

풍납토성 성벽의 전체 길이는 약 3.5km이다. 이를 아랫면 너비 43m, 윗면 너비 15m, 높이 12m의 사다리꼴 흙 구조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풍납토성 성벽을 쌓는 데 대략 1,075,200m³~1,344,000m³의 흙이 필요하다. 1,075,200m³은 흙을 정돈하지 않고 마구 쌓아놓을 경우에 필요한 수치이며 1,344,000m³은 흙을 잘 다지며 쌓을 경우에 필요한 흙의 양이다. 풍납토성은 잘 다져쌓은 토성이므로 체적 1,344,000m³을 기준으로 삼으면 15톤 덤프트럭(8m³)의 경우 168,000대를 움직여야 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고대 중국에서 토성을 쌓을 때 한사람의 하루 작업량이 0.6m³였다고 한다.(『通典』拒守篇) 이를 풍납토성 성벽축조에 적용하면, 연인원 약 2,240,000명을 동원한 셈이 된다. 인부 1만명이 224일을 꼬박 일해야 하는 작업량이다. 과연 백제는 풍납토성을 1년만에 쌓을 수 있었을까?

4세기 무렵 백제의 전체 인구는 약 70~80만명이었다. 당시 백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단기간의 전쟁에 3~4만명을 동원할 수 있었다. 군사 내지 일꾼은 보통 15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이었으므로 1가구(5인기준)당 차출 대상자는 1~2인에 불과했으며, 그조차도 장정을 차출당한 집안 식구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 이웃한 2~3가구의 장정(壯丁)을 차출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 백제로부터 1천여년이 흐른 뒤인 조선시대에는

군역(軍役)에서 정병(丁兵) 1인당 2~3인의 봉족(奉足)을 두었으며, 봉수(烽燧)의 경우에는 봉족이 봉군(烽軍)의 3배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농기구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고대 백제의 경우에는 군역 혹은 노역에 장정 1인을 차출하려면 장정이 속한 해당 1가구는 물론 이웃한 3~4가구를 봉족으로 지정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고대사회에서 하루 1만명 동원은 배후에 약 20만명의 지원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풍납토성 축조는 전쟁처럼 수개월만에 끝나는 일이 아닌데다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작업해야 했으므로 하루에 1만명씩 동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하루 2천명씩 동원했다고 계산할 경우, 풍납토성을 다 쌓으려면 1,120일(3년)이 걸린다. 2천명이 1년을 꼬박 일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장마철, 한겨울 등 계절 영향까지 감안하면 풍납토성 축조에 대략 4~6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천명 동원의 배후에 약 4만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4만명이 4~6년 동안 꼬박 희생한 피와 땀의 결과물이 바로 풍납토성 성벽인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이처럼 거대한 토목공사는 국가의 온 힘을 쏟아붓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의 풍납토성 성벽단면은 백제의 왕도 한성이 이곳 말고 다른 곳일 수 없으며, 1천6백년전 백제의 과학적 토목기술과 국력이 대단했음을 웅변하는 중요한 전시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뻗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잘 지키고 잘 활용해야겠다는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야 한다.

○ 토관 · 기와 · 그릇

지금까지 풍납토성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중에는 금제품, 은제품, 청자 등 고급품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풍납토성이 백제의 왕이 살던 도읍이었음을 증명하는 유물은 따로 있다. 기둥을 감쌌던 토제 기둥장식, 상·하수관으로 쓰였을 토관 등이다. 특히 풍납토성 안에서만 출토된 10여개의 토관이 정말 상·하수관이었다면 이견 정말 대단한 유물이다.

19세기말 한양(서울)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기행문에 따르면, 조선의 도성 내에서 종로일대는 깨끗하지만 도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은 오물 때문에 악취와 파리·

모기가 들끓었다고 한다. 하수도, 하수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적어도 1600년 전, 4~5세기에 풍납토성 안에서 하수관을 만들어 쓴 것이다. 당시의 세계 경제·기술 수준으로 보아 이처럼 위생적이며 격조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 기술자를 동원해야 했다. 토관은 서로 연결해 쓰는 시설물이므로 규격이 같도록 일정한 틀에 맞춰 고운 흙으로 수천개의 토관을 빚었을 것이다. 토관의 방수 효과를 높이려면 그늘에서 천천히 말린 뒤 불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야 하는데, 그를 위해 나무 수천그루를 잘라 말려서 가마 장작으로 써야만 했다. 땅을 파고 토관을 줄지어 묻는 작업에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1개의 토관 유물은 백제 때 상·하수관을 구성했을 토관 1천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수십명 혹은 수백명의 기술자를 장기간 동원할 수 있는 기술력, 경제력, 권력 등을 시사한다. 토관이 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저택과 정연한 도시구획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수준도 나타낸다. 4~5세기 무렵 백제에서 이처럼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백제왕과 그 주변 인물들뿐이었을 것이다.

금관이나 금동관은 지방의 수장 무덤에서도 나온다. 직접 만들었는지 왕에게서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금동관 1개만으로는 무덤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토관은 다르다. 토관은 수백개, 수천개가 있어야 하는 시설물이다. 1개만 발견되었어도 주변 땅속에 묻혔을 수백개, 수천개를 암시하는 유물이다. 기와도 마찬가지다. 회백색이 많은 백제 기와는 아주 얇고 가벼운 편인데, 당시 나무 기둥의 두께와 수량에 비례하는 시설물로서 수백개 이상을 연결해야 지붕을 만들 수 있었으므로 기술력, 경제력,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박물관의 토기를 마치 하급품인 것처럼 대하는 관람객도 있다. 청자·백자만 귀한 줄 알고 금관·금팔찌만 대단한 줄 안다. 그러나 박물관 유물은 고급품 기준이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유적·유물은 과거의 사실을 실감나게 알려주고 체험케 하는 역사 타임머신이기 때문에 박물관 관람에는 무엇보다 분석력·통찰력에 기반한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가령, 풍납토성·몽촌토성 등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적어도 1600여년을 땅속에 묻혀있었던 것들이다. 한반도의 흙은 산성(酸性)이 강해서 다른 곳보다 부

식 속도가 빠르는데, 그 속에서 1600여년을 견디었으니 본래의 질감과 색감을 모두 잃은 뒤 출토되는 것이 보통이다. 본래 견고하고 윤기가 돌던 그릇이었지만, 지금은 푸석푸석 거칠거칠 초라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기둥장식, 기와, 토관

○ 칠지도, 바둑판, 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성백제박물관 제2전시실에는 2개의 복제 칠지도(七支刀)가 전시되어 있다. 하나는 천여년의 오랜 세월을 상징하듯 붉은 갈색으로 심하게 녹슨 칼이며, 다른 하나는 방금 만든 듯 은색 바탕에 금색 상감이 빛나는 예리한 칼이다.

칠지도는 일본 나라현[奈良縣 덴리시[天理市] 소재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에 전해져오는 특이한 모양의 철제 ‘가지칼’로서, 칠지도(七枝刀)라고도 한다. 철을 두드려서 만든 이른바 단조(鍛造)이다. 전체 길이는 74.9cm이며, 그중 손잡이 내지 연결부에 해당하는 슴베[莖] 8.4cm를 뺀 나머지 66.5cm가 칼날에 해당하는데, 칼의 양쪽 날 부분에 마치 소뿔이나 나뭇가지처럼 굴곡진 가지가 각각 3개씩 등간격으로 뺀어 나와 있다. 이같은 형태의 무기는 아직 다른 곳에서 발견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한

용도라든가 명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특히 명문이 발견되기 전에는 칠지도에 습베가 달려있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칼이 아닌 ‘창(槍)’으로 간주하고 육지모(六支鎗)·육인모(六刃鎗)·육차모(六叉鎗)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1873~1877년 사이에 이소노카미신궁의 대궁사(大宮司)로 있던 간 마사도모(菅政友)가 칠지도에 붙어 있던 녹을 닦아내다가 칼의 양쪽 옆면에 금(金)으로 상감(象嵌)된 명문(銘文)을 발견함으로써 이것이 칼의 일종이며 제작 당시의 명칭이 칠지도였음이 분명해졌다.

명문은 한쪽 면에서 34자(字), 그리고 다른 쪽 면에서 27자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명문 외곽으로는 금선(金線)이 상감기법으로 가늘게 둘러쳐져 있다. 명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34자가 새겨진 곳을 보통 표면 또는 앞면이라 부르고, 27자가 새겨진 곳을 이면 또는 뒷면이라 부른다. 명문이 분명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아서 판독된 글자는 연구 시점과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상당수의 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한 덕분에 근래에는 꽤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

〈앞면〉 泰△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鑊七支刀生辟百兵宜供侯王△△△△作.

〈뒷면〉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

이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면〉 태△ 4년 5월 16일은 병오(丙午)인데, 이날 한낮에 백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줄 만하다. △△△△가 만들었다.

〈뒷면〉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왕세자 기(奇)가 성스러운 말씀을 내었으므로 왜왕 지(旨)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그러나 이와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뒷면〉의 ‘백제왕세자가 성스러운 말씀을 내었다’를 ‘백제왕이 다스릴 때 기묘하게 얻은 성스러운 소식’으로 해석한다거나 ‘성음을’ ‘성진(聖晋)’ 곧 중국의 동진(東晋317~418)왕조로 판독한 뒤 ‘백제왕의 세자가 생(生)을 성스러운 진나라에 의탁하고 있으므로’라고 풀이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왕 지’를 ‘왜왕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명문이

매우 단조로운 표현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주는 이와 받는 이가 함께 명시되었고, 명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명확한 뜻 전달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교를 버리고 매우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칠지도에 대한 학자들의 분분한 해석을 종합해보면, 논점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칠지도의 제작 시기를 알려주는 태△ 4년이 과연 언제인가 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제작 주체 곧 왜왕에게 칠지도를 만들어준 정치체가 과연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태△’는 태초(泰初) 혹은 태시(泰始)로 읽고, 중국 전진(前秦)의 태초(太初 386~394)라든가 서진(西晉)의 태시(太始·泰始 265~274), 남송(南宋)의 태시(泰始 465~471) 등에 주목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태화(泰和)로 읽고 위(魏)의 태화(太和 227~232), 동진의 태화(太和 366~371), 북위(北魏)의 태화(太和 477~499) 등에 주목하는 연구자가 많은 편이다. 또, ‘태△’를 백제의 연호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명문의 ‘5월’을 6월, 4월, 11월로 판독하기도 하며, ‘16일’을 11일 혹은 13일로 판독하는 사람도 있다. 대다수의 연구자는 칠지도를 만들어 왜왕에게 준 백제의 왕이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일 것으로 믿고 있으나, 간지(干支)가 딱 맞아떨어지는 전지왕(腆支王) 4년(408)이라든가 동성왕(東城王) 2년(480)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도 있다.

칠지도를 만든 주체와 목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①백제왕이 왜왕에게 바친 것이라는 설, ②백제왕이 왜왕에게 내려준 것이라는 설, ③동진의 왕이 백제를 통해 왜왕에게 내려주었다는 설, ④대등한 관계에서 백제왕이 왜왕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설 등이 제기되었다. ①설은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神功紀) 52년조의 “백제의 구저(久氐) 등이 천웅장언(千熊長彦)을 따라와서 칠지도(七枝刀) 하나와 칠자경(七子鏡) 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바쳤다”는 기사를 염두에 둔 입장인데, 『일본서기』의 신공기 기사가 매우 왜곡된 것이라는 데에는 학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거의 부정되고 있다. ③설은 명문에 동진의 연호(태화)가 사용되었다는 점과 뒷면에 성진(聖晉)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자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지만, 삼국시대에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예가 적지 않고 ‘성진’보다는 성음(聖音)일 개연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칠지도 문제는 ②설 혹은 ④설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하겠는데, ‘제후국의 왕’ 운운하는 문구가 있는 점, 왜왕의 이름(지(旨))이 거명된 점, 칼을 준 사람이 왕세자일 개연성이 높은 점, ‘후세에 전하여 보이랴’는 문구가 있는 점 등에 근거할 때 ②의 백제왕 하사설이 가장 유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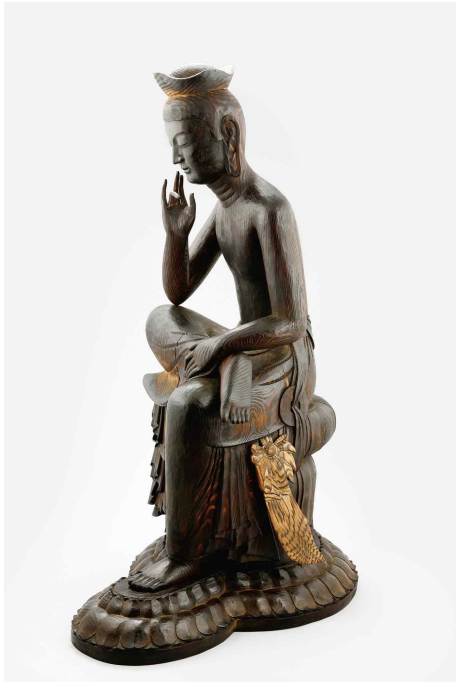
제2전시실 「놀이와 풍속」코너에는 바둑판, 바둑알, 바둑알통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일본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바둑기구의 복제품으로서, 백제왕이 일본왕실에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바둑판(木畫紫檀碁局)은 하나의 자춘빛의 자단목에 선과 문양을 상아와 각종 안료로 화려하게 표현하여 하나의 바둑판을 넘어 예술품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바둑판의 선은 19선이며 화점이 17개인데, 이는 한국의 순장바둑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흥미롭다.

바둑판을 담은 함(金銀龜甲碁局龕)은 바둑판보다 조금 크다. 바깥면에 상아 등으로 거북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열하고 그 무늬 안에 금박과 은박, 그리고 검은선으로 당화문(唐花文)을 그려넣은 뒤 투명한 각질 판자를 끼워 놓았다. 바둑들은 화려한 바둑판과 함에 걸맞도록 상아 표면을 염색하여 문양을 새기고 채색하였다. 양면에 화식조(花喰鳥)무늬를 새겼으며, 붉은색과 감색의 상아에 각각 다른 새 모양을 새겨넣었다. 붉은색과 감색 바둑알은 한 벌로 보인다. 이밖에 흰 바둑돌인 백기자는 석영, 검은 바둑돌인 흑기자는 사문암으로 만들었는데, 양면의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다.

바둑들을 담아 두었던 용기(銀平脫舍利子)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뚜껑 윗면에 꽃나무 아래에서 꽃가지를 물고있는 꼬리 긴 새를 장식하고 옆면에는 염주무늬와 4장의 꽃잎 무늬를 늘어놓았다. 또 하나는 뚜껑 윗면의 은판 무늬에서 중앙에 코끼리를 장식하고 아래쪽 암석에 꽃가지가 둥글게 자란 모양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바둑판은 백제사람들의 격조 높은 문화의식과 공예기술을 암시하며, 백제와 왜(倭) 왕실의 특수한 관계를 시사한다.

제3전시실 초입에는 목조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아스라한 조명 속에 홀로 전시되어 있다. 이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일본의 국보 1호(1897년 지정) 목조 불상으로서 「보관의 미륵」으로도 불리는데, 대표적인 백제계 도왜인(渡倭人)인 하타노카와카츠(秦河勝)가 7세기 초에 세운 코우류우지(廣隆寺)에 소장되어 있다.

불상은 가녀린 몸매에 소박하고 온화한 미소가 일품인 여성적 조각이다. 의자인지 침대 모서리인지 분명치 않지만 주름이 잔뜩 접히도록 천으로 덮은 곳에 걸터앉은 미륵은 허리춤까지 오는 얇은 치마를 입은 채 오른 다리를 들어 왼쪽 허벅지 위에 발목을 걸쳐놓았는데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고 발바닥이 위로 비스듬히 하늘을 향하는 기묘한 자세이다. 벌거벗은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에서 왼손은 오른 발목 위에 감싸듯이 살짝 올려놓고 오른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붙였다. 오른뺨 가까이로 가져간 가녀린 오른 손가락은 저마다 수줍은 듯 살며시 구부러져 어느 하나 곧추 펴진 것이 없다. 그중 엄지와 무명지를 안쪽으로 살짝 구부려 맞닿게 하고 가장 긴 중지는



일본 廣隆寺 목조미륵반가사유상

오른 뺨에 닿을 듯 길게 편 모습이다.

떴는지 감았는지 가늘게 찢어진 불상의 눈은 전혀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뚜렷하게 표현된 눈썹과 오뚝한 콧날은 마치 만화스케치처럼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통통한 양 볼 사이를 파고든 도톰한 입술은 끝을 살짝 위로 끌어올려 야릇한 미소를 만들어냈다. 미소를 더욱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두툼하면서도 유연한 턱선은 부드러운 계란형 얼굴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목에 표현한 삼도(三道)와 어우러지니 불상의 표정이 한결 여유로워 보인다. 머리에는 3면이 둥근 산모양의 관을 쓰고 있다. 불상의 앞은 키 높이는 83.3cm이며, 연꽃무늬 대좌까지 모두

합한 높이는 123.5cm이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불상을 두고 “이 세상에 이처럼 평화를 상징하고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낸 불상은 없다”며 극찬했다고 한다. 지상의 모든 시간적인 속박을 초월해서 달성해 낸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면서도 원만하고 영원한 모습의 표정이라는 것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보관의 미륵」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두고 여전히 일본학계에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갔거나 그 영향 하에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가장 큰 근거는 한국의 국보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불상은 금동으로 만들었고 얼굴 표정이 소년처럼 천진난만하며 목걸이를 걸쳤다는 차이점만 빼면 대좌의 문양, 앉은 자세와 제스처, 몸매와 의복 표현, 보관의 모양 등 많은 면에서 똑같다. 또 하나의 근거는 「보관의 미륵」을 한국에서 많이 자생하는 적송(赤松) 통나무 하나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5~7세기, 곧 아스카(飛鳥)·하쿠호(白鳳)시대의 목조불상들

은 모두 녹나무(樟木)이며, 대개 본체가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과 많이 다르다. 그리하여 적송으로 만든 「보관의 미륵」은 한반도에서 전래된 불상으로 단언한 연구자가 많다.

반가사유상은 석가모니가 출가를 고심하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조각으로서, 인도에서는 마투라의 붉은 사암제 반가상이 유명하며, 중국에서는 북위(北魏)·북제(北齊)·북주(北周) 등 남북조시대의 북조 국가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는 삼국시대 6세기 중반부터 통일신라 초까지 유행하였다. 지금 남아있는 작품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제78호와 국보 제83호인데, 모두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경주 수습품으로 전하므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화려하게 장식한 제78호에 비해 수수한 모습의 제83호 제작 시기가 조금 더 늦어 삼국시대 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본의 코우류우지 유래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금동미륵보살상의 좌상 높이는 2척(尺)8촌(寸)인데, 수이코천황 11년 계해(603)에 백제국이 쇼우토쿠태자에게 바쳤다. 태자가 오히리다미야(小墾田宮)에서 하타노카와카츠(秦川勝)에게 하사하였다. 이 상은 영험하고 불가사의하여 공경하고 존송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비록 금동미륵보살상이라고 재료가 다르게 적혀있지만, 불상의 크기 2척8촌은 「보관의 미륵」 2척7촌6푼(83.3cm)과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수이코천황 11년(603)에 하타노카와카츠가 쇼우토쿠태자에게서 받은 불상이란 백제로부터 건너온 미륵보살상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칠지도, 바둑판, 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은 백제와 왜(倭) 왕실의 특수한 관계를 시사하는 유물이다. 지금 모두 일본에 소장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과거 제작자가 누구냐이다. 그것을 어떤 목적에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유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3. 백제역사와 박물관전시를 통한 메시지

지금 우리는 시간을 분·초로 나누어 살고 있으며 인공적 물질문명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시간을 밤과 낮, 봄·여름·가을·겨울 4개의 계절로 구분하며 자연과 호흡하던 고대문명의 진면목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천년전의 백제 역사를 빛내기 위한 박물관이 아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이 잊고 지낸 서울의 고대 역사·문화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박물관이다. 그러므로 한성백제박물관의 메시지는 당연히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만나는 고대국가 백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2천년전 평야가 많고 땅이 기름지며 강과 바다를 끼고 있어 살기 좋은 한성(서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민의 다수는 북쪽 만주지역의 부여(夫餘)에서 내려온 예족(濊族), 압록강유역의 고구려에서 내려온 맥족(貊族), 대대로 한강유역에서 터 잡고 살아온 한족(韓族) 등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동해안의 옥저(沃沮)·동예(東濊)지역에서 살다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백제로 귀순한 사람들, 대동강유역의 낙랑군과 황해도의 대방군에서 살다가 땅이 고구려에 흡수되자 남쪽으로 피난 온 중국계 백제인, 백제의 고급문화와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바다를 건너 온 왜(倭)계 백제인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백제는 출신지역이 서로 다르고 말과 문화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多文化)사회를 이루었다.

자칫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근초고왕처럼 위대한 왕들이 하나로 묶어냈다. 중국출신 인재들을 등용해서 기술·문예를 발전시키고 외교에 활용하였다. 이웃나라 가야·신라와 사이좋게 지냄으로써 삼한계통 주민들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없애고 바다 건너 왜로 향하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었다. 왜왕에게는 칠지도(七支刀)를 만들어 보내고 학자·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선진문물을 전해주며 우호를 다졌다. 이후 왜국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백제의 요청에 따라 군사를 파견하는 맹방이 되었다.

4세기 후반 백제와 고구려가 한창 치열하게 충돌하던 무렵, 국제정세는 남방 국가연

합과 북방 국가연합이 대립하였다. 남방국가연합은 백제-동진-가야-신라-왜국, 북방국가연합은 고구려-전연으로 묶였다. 고구려와 달리 백제는 어떻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한데 묶어낸 것일까?

백제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해양문화가 발전했다. 서해 바다를 통해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오갔다. 바다 건너편 나라들과의 교류는 백제 사회의 개방성과 다문화 성향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래서 백제의 지배층은 조상이 서로 다르고 문화전통이 다른 사람들, 모여든 사연이 서로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 언제든 바다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을 백제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은 「통합의 리더」였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북으로 갈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백제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먼저 유물에 담긴 속뜻부터 알아야 한다.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한성백제사』1~5, 200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 2000년』, 200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 199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1997.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공석구,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1998.
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박순발,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문화사, 2001.
김기섭, 『백제 한성_서울의 시작』, 송파문화원, 2011.
최종택, 『아차산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노중국 외, 『금석문으로 백제를 읽다』, 학연문화사, 2014.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의 꿈, 왕도한산』(2013). 『백제의 왕궁』(2014). 『풍납토성, 건국의 기틀을 다지다』(2015). 『백제신라, 서울의 기억』(2016).

조선시대 한·중간 서적 교류

정호훈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조선시대 한·중간 서적 교류

- 조선 사람이 본 중국 책, 중국 사람이 본 조선 책 -

정호훈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1. 조선의 도서관 규장각(奎章閣)에서 볼 수 있는 중국 서적

1776년에 세워진 규장각은 도서관으로 출발했다. 정조는 이곳에 조선 정부와 왕실에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책을 모으고 또 새로운 자료를 구입해 비치했다. 세손(世孫) 시절부터 많은 책을 읽었던 정조가 책에 대해 쏟는 관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즉위 후, 『내각방서록(內閣訪書錄)』이란 책을 만들어 중국에서 구해올 책의 목록을 만들 정도였다. 이 책에는 모두 3,485종의 책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에는 책의 국적으로 본다면 조선에서 간행한 조선본, 중국·일본 등에서 간행한 외래본이 있었고, 편찬과 간행 시기로 본다면 15·6세기의 오래된 책과 근래(18~9세기에 나온 책이 두루 뒤섞여 있었다. 이리하여 규장각은 당시까지 한민족 역사상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 거대한 지식의 집성지가 되었다.

규장각에서는 이 책들을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宙舍樓) 근처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 수장했다. 조선 책과 외국 책의 수장처는 달랐는데, 조선에서 간행한 도서는 서고(西庫)에, 중국·일본에서 온 도서는 ‘개유와(皆有窩)’와 ‘열고관(閱古觀)’에 보관하고 관리

했다. 이 건물들은 20세기 전반까지도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주합루에서 보면 서남 방향의 맞은편 자락에 있는 숲이 본래의 자리다.

이곳에 소장된 책들의 규모는 대단했다. 특히 외국본 도서들이 그러했다. 모든 것을 [皆] 보유하고 있다[有는] 개유와(皆有窩), 옛날의 지혜[古]를 열어 살핀대[闕]는 열고관(闕古觀)이란 건물 이름 그대로, 조선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전 시기 조선에서는 구해 볼 수 없었던 지식과 정보를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었다. 정조대 규장각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국 책은 1781년에 편찬한 『규장총목(奎章總目)』에 따르면 약 600여종 3만여 권이었다.

『규장총목(奎章總目)』은 정조의 명에 따라 1781년(정조 5), 서호수(徐浩修) 서형수(徐滢修) 형제가 편찬했다. 이 책에서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전통적 분류법에 따라 도서를 나누었고, 도서마다 편찬자와 편찬시기, 그리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1805년(순조 5)에는 그간 구입했던 책을 더하여 증보했는데, 90종이 더 늘었다.

2. 유리창, 중국의 도서와 문물을 구입하던 공간

규장각 설립을 전후한 시기, 중국에서의 새로운 책 구입은 하나의 유행을 이루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출판 시장이 이전에 볼 수 없던 규모로 확장되고 있었고, 이와 맞물리며 새로운 사유와 신선한 감각이 책을 통하여 널리 확산되고 있는 중이었다. 중국의 도서를 구입하던 주요 시장은 북경의 유리창(琉璃廠)이었다. 사신을 간 사람들은 이곳에서, 책을 구해 오라는 정부의 과제에 맞추어 책을 구입하고, 또 개인적인 관심과 필요에 따라 새로운 서적을 구하기도 했다.

유리창은 본래 북경의 정양문(正陽門) 밖 남쪽 성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여러 빛깔

의 유리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공장 지대였다. 그런데 공장 밖에는 점포가 늘어서고 서점이 몰려 있어 재화와 보물이 넘치고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통상 유리창이라 불렀다. 서점으로서 규모가 큰 곳은 문수당(文粹堂), 오류거(五柳居), 선월루(先月樓) 등이었다. 책이 많이 모이는 만큼, 뛰어난 문인들도 이곳을 즐겨 찾았고 또 오래 머물기도 했다. 유리창 조금 떨어진 성안에는 천주교 교회당이 있어 이국(異國)의 풍광(風光) 역시 강렬했다.

조선에서 북경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유리창은 중국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나라의 낮설고도 풍요로운 풍물과 기운을 접하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이곳에 들러 책을 사고, 조선에 없는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며, 중국의 문인 학자들을 만나 교류했다. 18세기의 큰 학자 홍대용이나 이덕무가 청대의 학자 엄성(嚴誠)·반정균(潘庭筠) 등을 만나 교분을 나눈 것도 이곳이었다. 이곳의 골동품과 서화 등 진귀한 물품 또한 조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곳에서 파는 책들은 출판 문화가 발달했던 강남(江南 : 양자강 남쪽) 지방에서 배로 실어온 것이 많았다. 1778년(정조 2), 서장관을 따라 중국으로 갔던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李德懋)의 여행 기록은 이런 사실을 생생히 전해준다.

박제가와 함께 천주관(天主館-교회당)에 구경을 나갔는데, 주인이 없어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중략) 유리창에 가서 전 날 보지 못했던 책방 서너 곳을 들렀다. 도씨(陶氏)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매우 훌륭했는데 가게 이름은 오류거(五柳居)였다. 도씨는 말하기를, “책을 실은 배가 강남에서 올라 와 통주(通州) 장가만(張家灣)에 도착했는데, 내일이면 그 책을 이곳으로 수송하여 올 것이고 책은 모두 4천여 권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책의 목록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다. 거기에는 내가 평생 동안 구하려 하던 책뿐만 아니라 천하의 기이한 책들이 매우 많았다. 나는 비로소 절강(浙江)이 서적의 본 고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북경에 온 뒤 먼저 최근에 발간된 『절강서목(浙江書目)』을 구했었는데, 이 도씨 서목에는 『절강서목』에 없는 것도 있었다.

이덕무가 구했던 『절강서목』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첫 면에 정조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가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덕무는 유리창에서 『경해經解』, 『역사釋史』와 같은 책을 구입하고 또 『절강서목』에 빠진 책의 목록을 별도로 적어오기도 했다.

유리창은 새로운 문화 경험지였다. 조선 사람들은 이곳에서 책을 구하는 한편으로 문방사우(文房四友), 골동품(骨董品) 등도 즐겨 구매했다. 그런데 골동품 중에는 위조된 작품들도 꽤 나돌았고, 진위를 가리지 못해 속는 사람들도 많았던 모양이다. 박지원은 연행 중에, 『박고도(博古圖)』, 『서청고감(西淸古鑑)』 등 고기물(古器物)을 소개하고 있는 책을 구해 옛 그릇의 모양을 충분히 익힌 뒤 골동품을 구하게 되면 속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중국인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

3. 하늘·땅·사람에 관한 온갖 지식을 망라한 『고금도서집성』

정조가 중국에서 구입한 대표적인 자료는 『고금도서집성』이다. 이 책은 청나라 강희제(康熙帝) 때 편찬이 시작되어 1723년 옹정제(雍正帝) 때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18세기 초반까지 중국에 알려져 있던 자연과 사회, 인간에 관한 지식이 집대성되어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저술은 물론이고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기술 서적도 포괄했는데, 모두 6 분야의 주제를 5,020책 10,000권 분량에 실었다. 목록(目錄)이 40권이나 된다. 규모가 규모인 만치 이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구리 활자로 모두 66부만 인쇄하여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고금도서집성』은 태생적으로 쉽게 구해 볼 수 없는 귀한 책이었다. 엄청난 물력이 소요되고 많은 학자가 동원되는 이 거대 규모의 출판 사업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다양한 내용의 책과 지식을 하나로 모은 데서 오는 문화적 파급력은 대단했다.

『고금도서집성』의 주제와 권수

순서	분야	주제	권수
1	역상휘편(曆象彙編)	천문, 달력, 자연현상에 관한 사항	536
2	방여휘편(方輿彙編)	땅, 지리, 산천 형세, 중국 변방의 여러 종족에 관한 사항	2,144
3	명륜휘편(明倫彙編)	군주, 궁궐, 관직, 왕실의 규범, 여러 성씨에 관한 사항	2,612
4	박물휘편(博物彙編)	예술, 동물과 곤충, 초목에 관한 사항	1,656
5	이학휘편(理學彙編)	경서, 학자와 도덕군자, 문학, 문자학에 관한 사항	1,220
6	경제휘편(經濟彙編)	관료 선발과 임용, 국가재정, 예제, 형벌, 음악, 군사, 건축, 기술에 관한 사항	1,832
총권수			10,000

조선에서 『고금도서집성』을 들여온 때는 1777년(정조 1)이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이은(李澂), 서호수(徐浩修) 등이 정조의 명령에 따라 힘들게 구해온 것이다. 구입가는 은(銀) 2천 1백 50냥. 은과 상평통보(常平通寶)의 당시 교환 비율이 대체로 1 : 4였고 상평통보 1냥의 현재 가치는 대략 5만원이니, 책값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유득공(柳得恭)의 숙부로 사행에 참가했던 유금(柳琴)이 한림원의 지인(知人)에게 부탁하여 힘들게 구했다.

본래 서호수 등이 목표로 했던 책은 『사고전서(四庫全書)』였다. 『고금도서집성』보다 규모가 더 큰 이 책은 건륭제 즉위 초부터 편찬이 진행되었는데, 조선에서 이 사실을 알고 사행길에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고전서』는 아직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에 구할 수가 없었다. 아마 편찬이 끝났다 할지라도 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원본을 포함하여 모두 8부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구입한 『고금도서집성』은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고금도서집성』을 들여온 뒤 개유와(皆有窩)에 별도의 서가를 설치하여 보관하였다. 이어 1780년(정조 4)에는 이덕무 등 규장각 검서관(檢書官)들을 시켜 원하는 내용의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색인집을 만들었다. 『도서집성분편제차목록(圖書集成分編第次目錄)』이 그 책이다. 『고금도서집성』의 분량이 너무 방대했으므로 색인집은 반드시 필요했다. 당시 『고금도서집성』은 502개의 함에 담겨, 열고관의 4개의 서장에 보관되었는데, 『도서집성분편제차목록(圖書集成分編第次目錄)』에서는 책함 번호와 함에 보관된 책의 주제를 정리하였다.

『고금도서집성』의 표지 장정도 중국식에서 조선식으로 바꾸었다. 중국에서는 책을 만들 때 네 번 꿰매는 방식을 쓰지만(四針眼) 조선에서는 이와 달리 다섯 번을 꿰매는(五針眼)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글씨를 잘 쓰는 상의원(尙衣院) 주부(主簿) 조유흥(趙允亨)을 시켜 표지마다 책의 제목을 적었다. 조선식 책으로의 대변화였다.

거금을 들여 이 책을 구해온 정조가 이 책에 기울이는 정성은 대단했다. 그가 이 책을 중시했던 모습은 각 책마다 찍은 장서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5000 여 모든 책의 첫 머리에 ‘朝鮮國(조선국)’, ‘萬機之暇(만기지가)’, ‘極(극)’, ‘弘齋(홍재)’를 새긴 장서인을 찍었다. 홍재는 정조의 호이고, 만기지가는 바쁜 업무 중의 여가, 극은 군주를 가리키는 단어로, 정조는 이들 인장을 즐겨 사용했다. 조선국이란 장서인을 찍어 보관한 도서는 규장각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

4. 『고금도서집성』의 활용 : 화성 축성에 사용할 거중기를 만들다

정조는 중국에서 구입한 책들을 열심히 읽고 거기에 실린 새로운 지식으로 식견을 키우며 새로운 국가를 운영할 포부를 원대하게 키워 나갔다. 정조는 규장각의 각신들, 초계문신들, 검서관들에게도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며 그들이 지식 세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기대했다. 규장각의 책들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지식의 원천이었다. 정조가 규장각에 소장된 책들을 활용하는 양상은 『고금도서집성』에 실려 있는 거중기 제작법을 바탕으로 화성 축성에 사용할 거중기를 만든 사실에서 살필 수 있다. 정조는 이 일을 정약용에게 맡겼다.

거중기 제작법은 『고금도서집성』의 4,999책과 5,000책에 실린 『기기도설』에 실려 있었다. 『기기도설』은 16세기 유럽에서 고안된 ‘기묘한 기계’들의 제작법 및 작동 원리를 다룬 책으로, 예수회 선교사 요한 슈렉(중국명 鄧玉函)과 왕징(王徵)이 함께 저술한 『원서기기도설록최(遠西奇器圖說錄最)』 권3의 도설 부분과 왕징의 『신제제기도설(新製諸器圖說)』에서 ‘연노도설(連弩圖說)’을 뺀 나머지 부분을 합하여 만들어졌다. 수록된 그림들은 대개 유럽의 기계기술자 라멜리(Agostino Ramelli), 종카(Vittorio Zonca), 베송(Jacues Besson)의 책에 실린 것을 중국풍으로 모사했다. 『기기도설』은 그 자체로 독립된 책이었지만, 조선에서는 『고금도서집성』의 일부로서 주목되었던 셈이다.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는 『기기도설(奇器圖說)』에 수록된 「기중지법(起重之法)」의 11개 도설 중에서 제8도와 11도를 참고·응용하여 작성되었다. 정약용은 네 개의 움직도르래와 네 개의 고정도르래가 결합된 복합도르래 양측에 한 쌍의 축바퀴(눅로)가 덧붙여진 형태로 이 기구를 설계했다. 비록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정약용은 이러한 구조의 거중기를 사용하면 “40근의 힘으로 2만 5천 근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참고한 『고금도서집성』본 『기기도설』에 『원서기기도설록최』의 역학 이론 부분이 빠져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원리의 정확한 이해보다는 실제 효용을 더욱 중시하는 정약용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기도설』의 원본, 정약용의 설계도, 실제로 제작되어 사용된 기계의 설계도를 비교해보면, 서로 비슷하면서도 상당한 변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화성 건설이 끝난 뒤 정조는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 덕분에 4만 냥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 그의 공을 크게 치켜 올렸다.

1792년 겨울에 수원(水原)에 성을 쌓게 되었다. 주상이 이르기를, “1789년(정조 13) 주교(舟橋)를 만들 때 정약용이 그 제작법을 만들어 일이 잘 마무리되었으니, 그를 불러 성 만드는 법을 자세히 보고하도록 해라.” 하였다. (중략) 주상이 또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기기도설(奇器圖說)』을 내려 인중법(引重法)·기중법(起重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내가 이에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지어 올렸다. 활거(滑車)와 고륜(鼓輪)은 작은 힘을 써서 큰 무게를 옮길 수 있었다. 성역(城役)을 마친 뒤에 주상이 일렀다. “기중가(起重架)를 써서 다행히 돈 4만 냥의 비용을 줄였다.”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권16, 自撰墓誌銘)

정약용은 조선에서 중국의 우수한 문물을 적극 수입하는 한편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인 이용감(利用監)을 만들어 물질 생활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구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아마도 『기기도설』을 활용하여 기중기를 만들어 낼 줄 아는 감각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5. 중국으로 간행되어 읽힌 조선 책 : 『동의보감(東醫寶鑑)』

규장각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간행되어 유통되었던 책도 소장되어 있다. 중국과 조선의 문화 관계에서 본다면 조선에서 중국의 책을 수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간혹 조선의 책을 중국 사회가 받아들여 이용하기도 했다. 종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18~9세기에는 그러한 책들이 가끔 출현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책이 『동의보감』이다.

『동의보감』은 17세기 초, 조선에서 최초로 간행된 후 그 내용의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널리 이용되었다. 그 가진 가치로 인해 이 책은 해외로도 널리 알려졌는데, 1724년에 일본에서 『정정동의보감(訂正東醫寶鑑)』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간행되었으며,

1760년대에는 중국에서도 출판되었다.

중국에서 간행된 동의보감은 이후로도 꾸준히 인기를 얻어 30여 차례나 간행되었다고 한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수 천여 종에 달하는 의서가운데 『동의보감』보다 자주 간행된 의서는 대여섯 종에 불과할 정도였다.

동의보감은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유리창에서 목격하고 구입해서 역으로 조선에 수입하기도 했다. 아래 발언은 정조의 증언이다.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을 중국 사람들이 구매해 판각하여 천하(중국)에 널리 유포하였으며, 그 중국본이 역시 우리나라로 다시 팔려온 것이 많다. 우리나라 서책으로서 중국에서 판각된 것은 『동의보감』 외에는 들어본 것이 없다.(『홍재전서(弘齋全書)』 권132, 故寔4, 「朱子大全」)

선왕이자 할아버지였던 영조(英祖)의 질병 치료에 직접 참여할 만큼 의학에 조예가 있었던 정조는 자신이 편찬하였던 『수민묘전(壽民妙詮)』이라는 의서의 대부분 내용을 『동의보감』에서 채택할 정도로 이 책을 중요하게 여겼다.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이덕무(李德懋)도 조선의 대표 서적으로 이이(李珣)의 『성학집요(聖學輯要)』,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과 함께 『동의보감』을 거론하였다.

중국에서 이 책이 판매되는 것을 보며 비싸서 사지는 못하고 묘한 감회에 젖는 조선 사람도 있었다. 1780년 청나라 사신 행차에 따라갔던 박지원은 책값으로 은 5냥을 낼 길이 없자 하릴없이 청나라 학자 능어(凌魚)의 서문만 베껴서 돌아왔다.

우리나라 서적으로서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 극히 드물었고, 다만 『동의보감』 25권이 성행하였을 뿐이었는데 판본이 정묘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의술이 널리 퍼지지 못하고, 토산 약품이 옹지 못하였으므로 선조 대왕이 태의(太醫) 허준(許浚)과 유의(儒醫) 정작(鄭瓘)과 의관(醫官) 양예수(楊禮壽)·김응택(金應澤)·이명원(李命源)·정예남(鄭禮男) 등에게 명령을 내려 국(局)을 차리고 이를 편찬할 제, 내부(內府)의 의방

(醫方) 5백 권을 내어 고증의 자료로 삼아서 선조 병신(1596년)에 시작하여 광해군 3년(1610년)에 완성하였다. 그 간본(刊本) 서문(序文)의 문장이 제법 소창(疎暢)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동의보감은 곧 옛 명(明) 때 조선 양평군(陽平君) 허준이 엮은 것이다. 상고하건대 조선 사람들은 애초부터 문자를 알며, 글 읽기를 좋아하였고, 허(許)씨는 또 그 중의 세족이어서 만력 때 봉(筥)·성(箴)·균(筥) 등 형제 세 사람이 모두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그의 누이 동생 경번(景樊-허난설헌)의 재명(才名)이 더욱 그의 오빠들보다 뛰어났으니, 구변(九邊)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걸출했다. 그 ‘동의(東醫)’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 나라가 동쪽에 있으므로 의원에서도 동(東)이라 일컫는 것이었다. (중략) 이제 이 책을 살펴 보면 첫째 내경(內景)을 논하였음은 그 근원을 따름이요, 다음에 외형(外形)을 논한 것은 그 끝을 나눔이었고, 다음에 잡병(雜病)을 논한 것은 그 증세를 분간함이었고, 다음에 탕약과 뜸질로써 마친 것은 그 방법을 정함이었다. 그 중에서 인용한 책으로 말한다면, 『천원옥책(天元玉冊)』 으로부터 『의방집략(醫方集略)』 에 이르기까지 모두 80여 종이나 되는데, 모두가 우리 중국의 책들이었고, 동국(東國)의 책은 불과 3종뿐이었다. 옛 사람이 이룩한 방법을 따르면서 능히 신통하게 밝혀낸 것이 있어서 우주 사이의 결합을 보충하고 4대(땅·물·불·바람)에 양기(陽氣)를 베풀었었다. 이 책은 이미 황제께 올려서 국수(國手)임이 인정되었으나, 다만 여태까지 비각(秘閣)에 간직되어 세상 사람이 엿보기 어려웠었다. 얼마 전에 차사(齎使-鹽運使의 별칭) 산좌(山左) 왕공(王公)이 월(粵 광동·광서·운남·귀주)의 총칭) 지역을 맡았을 제, 시속의 의원이 그릇됨이 많음을 딱하게 여겨 사람을 수도에 보내어 이를 배겼으나, 미처 간행하지 못한 채 곧 그곳을 떠나 버렸다. 순덕(順德)에 살고 있는 명경(明經) 좌군(左君) 한문(翰文)은 나의 어릴 때부터의 친구였는데, 개연(慨然)히 이를 간행하여 널리 전하기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3백 민(緡)이 넘는 돈을 소비하였으나 조금도 아끼는 빛이 없었다. 대체로 그 마음은 병든 생명을 건지고 물건을 이롭게 할 마음이었고, 그 일인즉 음양(陰陽)을 조화하는 일인 동시에 천하의 보배는 의당 천하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니, 좌군의 어진 마음이 크도다. 판각이 끝난 뒤에 나에게 서(序)를 부탁하므로 드디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머리에

쓴다. 건륭(乾隆) 31년 병술(1766년) 난추(蘭秋 7월의 별칭) 상완(上浣 상순)에 원임 호남소양예릉흥녕계양현사 충경오임신계유병자사과 호광향시동고관(原任湖南邵陽醴陵興寧桂陽縣事充庚午壬申癸酉丙子四科湖廣鄉試同考官) 능어(凌魚)는 쓰노라.”하였다.

내 집에는 좋은 의서가 없어서 매양 병이 나면 사망 이웃에 돌아다니며 빌려 보았더니,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몹시 사 갖고자 하였으나, 은 닷 냥을 낼 길이 없어서 섭섭함을 이기지 못한 채 돌아올 제, 다만 능어가 쓴 서문(序文)만을 베껴서 뒷날의 참고에 바탕으로 삼으려 한다.[『열하일기(熱河日記)』, 국외이문(國外異聞), 동의보감(東醫寶鑑)]

박지원이 작성한 위의 글은 『동의보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려 준다. 이 책을 중국의 조정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한 개인이 적지 않은 사비를 들여 출판했으며, 실제 민간에서 의서로 활용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18세기 동아시아 사회에서 『동의보감』은 조선을 대표하는 의서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대표 의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의서로써는 드물게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았다.

6. 규장각, 세계를 향한 창구

정조가 규장각을 세우고 많은 책들을 수집한 것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지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정조는 중국에서의 새로운 책들이 고루한 식견을 깨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는 사고를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많은 서적을 구입한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정조는 그 스스로 구입한 책들을 부지런히 읽었고 신하들도 많이 공부하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규장각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고를 세계로 넓혀가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으며, 조선에서 학술과 문예를 일으

키는 중심지가 되었다. 물론 규장각이 품었던 지식 세계가 조선의 획기적인 변화로 직접 귀결되지는 못했다. 19세기 조선 현실에서 외래한 새로운 생각과 문물은 천천히 뿌리 내리며 조선의 문화 속으로 용해되고 있었다.

세계와 소통하며 변화를 꿈꾸었던 후손들은 늘 정조대의 경험을 참고하며 새로운 시대의 지식을 담은 책을 구입하고 읽었다. 개화 문물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고종대의 집옥재(集玉齋) 도서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집옥재는 경복궁에서 고종이 서재로 사용하던 곳인데, 여기에는 한역(漢譯)된 서양의 최신 과학책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국본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고종의 적극적인 개화정책으로 인해 화학·역학·전자기학·병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양 근대 과학 지식이 모인 것이다.

규장각은 조선 사람들이 외국의 문화와 지식을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며 성장했던 과거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늘 날 이곳에 서면, 현재의 현실과 닳쳐올 미래를 치열하게 탐구했던 옛 노력을 따뜻하게 떠올리게 된다.

활자의 나라, 조선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활자의 나라, 조선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프롤로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자를 보관하고 있는 곳,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는 82만여 자에 달하는 활자가 소장되어 있다. 이 중 금속활자가 약 50만자, 목활자가 약 30만 자이며, 소량의 도활자(陶活字)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활자들은 조선시대의 인쇄 출판 담당 관청인 교서관(校書館) 등에서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책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대부분 17세기~20세기 초에 제작한 활자들이다.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활자가, 그것도 국가에서 공들여 만든 활자가 이처럼 많이 남아 있는 예를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이렇게 많은 활자가 체계적으로 남아 있는 곳은 세계에서 국립중앙박물관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에도 근대 이전에 제작한 활자가 남아 있지만,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에 미치지 못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서 실제로 제작하고 사용한 활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금속활자와 목활자 합하여 수십 회 제작했으며, 총 제작 수량은 수백만자는 될 것이다. 금속활자의 경우 녹여서 새 활자로 만들어지거나 분실되기도 하고, 목활자 역시 수명이 길지 않고 불에 타기도 하여 오늘날 남

아 있는 수량은 실제 제작한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은 그야말로 ‘활자의 나라’였다.

문치주의를 표방한 조선은 유교 이념을 토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자 시절부터 유교 이념을 익히고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 여러 경전(經典)들을 배워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경연(經筵) 등을 실시하여 끊임없이 독서를 했다.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유교적 소양을 쌓아 과거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따라서 유교 이념이나 제도와 관련된 책들이 조선 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책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책들을 인쇄하기 위해 조선은 고려시대에 발명한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를 발전시켰다. 활자는 한번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조립해서 원하는 책을 신속하게 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세종, 조선의 대표 활자를 만들다-갑인자

1403년(태종 3) 태종이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를 만들었으나, 제작 기법이 미숙하여 하루에 몇 장밖에 인쇄할 수 없었다. 세종은 인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하들에게 명하여 새로운 활자를 만들게 했다. 1420년(세종 2)에 경자자(庚子字)를 만들었으나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1434년(세종 16)에 다시 갑인자(甲寅字)를 만들었는데, 인쇄 속도와 글자체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았다.

갑인자의 글자체는 명나라 판본의 글자체에서 따오고 모자라는 글자는 후에 세조가 되는 진양대군(晉陽大君)이 직접 썼다. 이후 이 글자체로 조선시대에 5차례나 활자를 더 만들 정도로 조선 왕조를 대표하는 글자체라 할 수 있다.

갑인자로 제일 처음 간행한 책은 『대학연의(大學衍義)』이다. 『대학연의』는 송대의 성리학자인 진덕수(眞德秀)가 『대학(大學)』에 주석을 단 책으로, 제왕이 정치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유용하여 제왕의 ‘정치지침서’라고 여길만한 책이다. 『대학연의』에 이어서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인쇄했다. 역사를 정치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유교에서는 역사를 중시했다. 이 두 책은 중국의 역사를 비롯한 지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이어서, 세종은 신하들과 함께 두 책에 대한 주석을 다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물을 갑인자로 간행했다.

이처럼 갑인자는 먼저 통치에 필요한 책을 인쇄하는 데 사용했으며, 이런 책들은 경연과 서연 등 제왕의 공부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편찬되었으며, 그 종류는 유교 사상서, 역사서, 법률서, 문학서 등 아주 다양한데, 모두 유교적 통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들이다.

정조는 1772년(영조 48) 세손 시절에 갑인자의 글자체로 대소자(大小字) 15만자를 만들게 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만든 갑인자인 임진자(壬辰字:五鑄甲寅字)이다. 정조는 1777년(정조 1)에 서호수(徐浩修)에게 명하여 평양에서 갑인자의 글자체로 다시 15만자를 만들게 했는데 이것이 여섯 번째 갑인자인 정유자(丁酉字:六鑄甲寅字)이다. 임진자는 교서관에, 정유자는 내각(內閣) 즉 규장각(奎章閣)에 보관해두고 필요한 책을 간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정조가 만든 갑인자체 활자가 약 17만자 소장되어 있다. 이 활자는 대부분 임진자로 간주되고 있다. 1857년(철종 9) 정유자 등을 보관해두었던 주자소(鑄字所)에 불이 나서 정유자가 불에 타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유자가 모두 불에 타지는 않았기 때문에 17만자 속에는 정유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림 1 다섯 번째 갑인자인 임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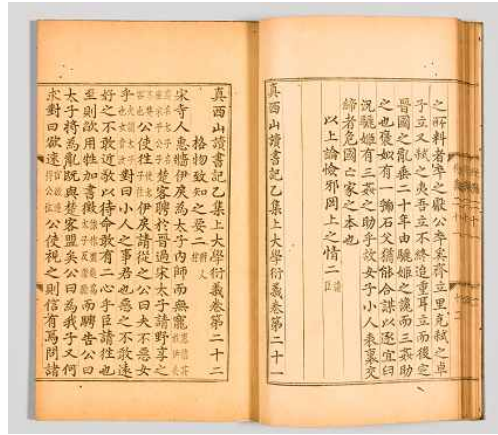


그림 2 갑인자로 제일 처음 간행한 『대학연의』

2. 정조, 치밀하게 계획하여 활자를 개량하다 정리자

정조는 세종과 함께 호학의 군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많은 책을 직접 저술하고 출판했다. 또한 책을 간행하기 위해 활자 제작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정조는 임진자 15만 자, 정유자 15만 자를 만든 데 이어, 1782년(정조 6)에는 숙종 때 만든 한구자(韓構字)의 글자체로 다시 8만여 자를 주조하게 했다. 이어 목활자인 생생자(生生字) 32만 자를 만들고, 생생자의 글자체로 다시 금속활자인 정리자(整理字) 30여만 자를 만들게 했다. 이외에도 춘추강자(春秋綱字), 오륜행실자(五倫行實字) 등 100만자가 넘는 활자를 제작했다.

정조가 만든 활자 가운데 가장 주목할 활자이자, 정조의 활자에 대한 구상을 잘 담고 있는 활자가 정리자이다. 정리자리는 이름은 이 활자로 찍은 책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서 비롯되었다. 이 의궤는 1795년(정조 19 을묘년)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탄생 60주년이 되는 해에 생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소가 있는 화성(華城)의 현릉원(顯隆園)에 어머니를 모시고 행차한 기록을 담은 것으로, 필사가 아닌 인쇄된 최초의 의궤이다. 을묘년의 화성 행차는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정조의 정치력과 정치 구상을 보여주려는 것이었고, 정리자 역시 정조의 이러한 구상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정리자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조의 치밀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활자이다.

정조는 인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활자를 만들기 위해 중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로 한 듯하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사고전서(四庫全書) 편찬 작업을 진행하며 편찬 부총재인 김간(金簡)의 건의로 목활자 253,500개를 만들어 사고전서 가운데 일부를 인쇄했다. 정조는 연행사(燕行使)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1814년(순조 14)에 작성한 『관당고(板堂考)』(주자소에 방치된 장서와 책판, 활자 등을 일제점검하고 그 결과 및 활자 관리 지침을 기록한 책)에 기록된 주자소 보관 활자 가운데 1791년(정조 15)과 1792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구입해 온 목활자가 있고 그 수량도 나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 가운데는 이 때 수입해온 활자가 남아 있다. 이 활자들은 조선의 목활자와 글자체 및 형태가 다르다. 특히 강희제(康熙帝)의 이름자인 현엽(玄燁)의 ‘玄’자와 건륭제(乾隆帝)의 이름인 홍력(弘曆)의 ‘弘’을 결획(缺劃)으로 피휘(避諱)하여 건륭 이전에 만든 활자임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활자를 들여온 이유는 새로운 활자를 제작하면서 중국의 실물활자를 직접 확인하고 참고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자는 다른 활자들에 비해 모양이 균일하고 동(銅)의 사용량도 줄었다. 글자체도 갑인자와 같은 필서체(筆書體)가 아닌 인서체(印書體)로 『강희사전(康熙字典)』의 글자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조는 정리자가 인쇄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작 의도를 만족시켰다고 자평하면서, 글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글자체는 근대적인 글자체로서 가독성이 높아, 의궤와 정조의 명으로 간행한 서적 외에 『관보(官報)』 등 근대 인쇄물에도 사용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정리자가 21만 여자 남아 있는데, 철종 때 다시 만든 것과 정조 때 만든 것이 섞여 있다. 육안으로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용 흔적이 없는 것은 철종 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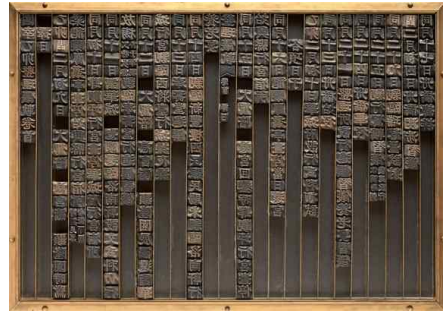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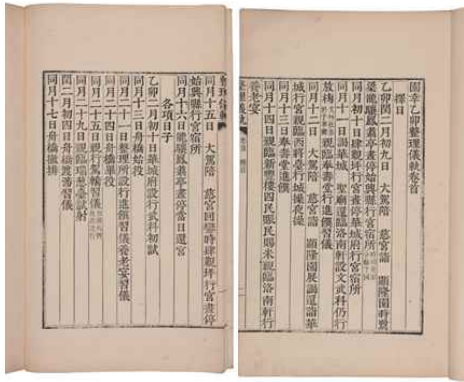


그림 3 정리자로 간행한 『원행을묘정리의계』의 한 면과 이를 정리자로 재현한 모습



그림 4 중국에서 구입한 목활자



그림 5 중국에서 구입한 목활자-피휘활자

3. 실록 간행을 위해 금속활자를 만들다-실록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금속활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새로 만들 형편이 되지 못하자, 『현종실록(顯宗實錄)』 이전의 선조~효종까지의 실록은 목활자로 간행했다. 『현종실록』을 간행하면서 처음으로 실록 간행을 위해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이것을 ‘실록자(實錄字)’ 또는 ‘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라고 한다. 1675년(현종 1)~1677년에 걸쳐 편찬 간행한 『현종실록』의 간행 경위를 기록한 『현종실록찬수청의계(顯宗實錄纂修廳儀軌)』를 보면, 『현종실록』은 낙동계(洛東契)에서 만든 활자(일명 낙동계자) 3만 여자를 들여오고 모자라는 글자 4만여 자를 새로 주조해서 간행했다고 한다. 실록을 인쇄한 후 이 활자를 조정에 두고 여러 책을 간행하는 데 사용했다. 따라서 현종실록자에

는 낙동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현종실록』을 간행한 17세기 중엽에는 국가의 역량으로 금속활자를 제작할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사주갑인자(四鑄甲寅字)인 무신자(戊申字)가 김좌명(金佐明)의 주도로 제작되어 조정에 들어왔듯이, 실록자 역시 민간에서 만든 것을 실록을 비롯해 조정에서 필요한 책을 간행하기 위해 들여왔던 것이다.

‘낙동(洛東)’은 낙의 동쪽이라는 뜻이며, 낙은 중국 후한(後漢)의 수도였던 낙양(洛陽)을 가리키는 말로 수도라는 뜻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낙동은 조선의 수도 한양의 동부 지역이라는 뜻이다. 낙동(駱東), 동촌(東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은 오늘날 낙산 아래 동송동, 혜화동 일대이다. 계는 구성원간 상호친목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든 단체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혈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契를) 만들었다. 낙동계는 한양 동부 지역에 사는 유력 문인들이 만든 계로 추정되며, 양란 후에 서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충분히 책을 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의기투합해 자금을 내어 스스로 책을 간행하기 위해 활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낙동계자로 간행한 책 가운데 간행 기록이 있는 가장 이른 것이 1674년 4월에 간행한 『경자증광사마방목庚子增廣司馬榜目』이다. 이 활자는 1674년에서 멀지 않은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실록』을 간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자를 제작한 것이 1676년 3월이다. 낙동계자는 그 이전에 궁중에 들어갔을 것이므로, 낙동계에서 이 활자를 사용한 기간은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실록자는 무엇보다 『현종실록』 이후 조선왕조실록을 간행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역대 왕들의 언행과 시문 등을 모은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 『열성어제(列聖御製)』 등 왕실 관련 서적을 간행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동문선(東文選)』 등 역사와 문학 관련 관찬 서적 간행에도 사용되었다.

갑인자나 정리자와 달리 실록자는 글자체의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실록자의 글자체, 또 실록자로 간행한 책에 찍힌 글자체를 보면, 갑인자와 비슷한 필

서체이지만 좀 더 딱딱하며 전형적인 해서체(楷書體)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글자 별로 자세히 보면, 같은 글자라도 글자체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활자 모양도 일정하지 않다. 이는 실록자 속에 낙동계에서 만든 활자와 『현종실록』 간행 때 만든 활자, 이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든 활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즉 실록자에는 17세기부터 19세기의 활자가 섞여 있어 시간에 따른 활자 모양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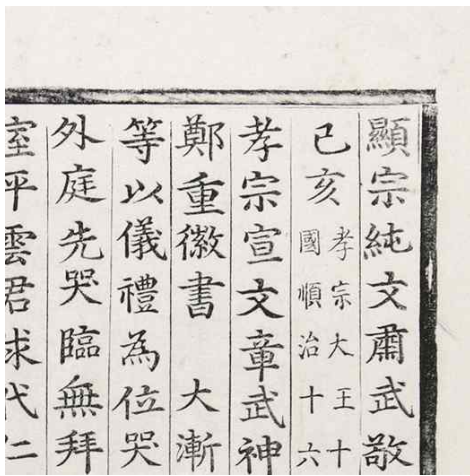


그림 6 실록자로 간행한 『현종실록』



그림 7 실록자

4. 금속활자, 사용층이 늘어나다-한구자, 교서관인서체자, 전사자

정조의 명을 받아 임진자를 주조한 서명옹(徐命膺)은 세종이 만든 갑인자를 제왕의 대통을 전하는 부서(符瑞), 즉 제왕의 상징물이라 표현했다. 이처럼 조선시대 금속활자는 국가와 왕실의 보물이자 전유물이었고, 공식적으로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책을 간행하는 데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민간에서 함부로 만들 수 없었으며, 금속활자를 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과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만들기도 어려웠다.

양란 이후 국가에서 금속활자를 제작할 상황이 되지 못하자,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유력가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무신자와 낙동계자에서 보듯 이 활자들은 결국 국가로 들어갔지만, 국가에서 공적으로 사용하기 전 먼저 개인의 문집 출판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었다.

대동법 시행으로 잘 알려진 김육(金堉)의 집안이 17세기 금속활자 제작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김육의 아들 김좌명은 무신자를 제작했고 김좌명의 아들이자 김육의 손자인 김석주(金錫胄)도 한구자(韓構字)를 제작했다. 한구자는 숙종 연간의 명필인 한구(韓構)가 쓴 글씨로 만든 활자이다. 이 활자는 1679년(숙종 5)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글자체는 가는 붓으로 쓴 행서체(行書體)에 가까우며, 글자 크기도 다른 활자에 비해 작다. 이 활자가 당시의 다른 글자체와 크기나 서체가 다른 것은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글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도 노렸던 것 같다.

김석주가 죽고 난 후 조정에서 이 활자를 사들여 조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책들을 간행했다. 이렇듯 한구자는 유력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되어 사용되다가 조정으로 들어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 대표적인 금속활자이다.

17~19세기에는 명나라 판본에 사용된 새로운 글자체인 인서체(印書體)(붓으로 쓴 듯한 글자체와 구분되는 각진 글자체)를 본떠 도서관에서 만든 활자로 개인의 문집을 만드는 일이 유행했다. 1816년(순조 16) 순조의 외삼촌 박종경(朴宗慶)은 청나라 판본의 글자체를 본떠 전사자(全史字)를 만들었다. 19세기에 민간에서 상업적 출판에 사용된 철활자는 조선왕실의 족보인 『선원속보(璿源續譜)』를 간행할 때도 사용되었다.



그림 8 한구자



그림 9 교서관인서체자



그림 10 전사자



그림 11 철활자

5. 왕세자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한글 활자를 제작하다 한글 활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는 한자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활자도 대부분 한자 활자였다. 하지만 왕세자의 교육을 위해 언해본(諺解本)이 필요했고, 백성들에게 유교 이념을 가르치기 위해 유교 서적을 언해할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가에서 한글 활자를 제작했다.

한글을 창제한 이후 처음으로 만든 금속활자는 1447년 『석보상절(釋譜詳節)』을 간행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의 돋움체와 비슷하다. 이후 을해자병용(乙亥字併用) 한글자, 경서(經書) 한글자, 무신자(戊申字) 병용 한글자, 원종자(元宗字) 병용 한글자, 재주정리자병용 한글자 정도가 금속활자로 만들어졌다.

국가에서 제작했던 한글 활자 실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글 금속활자 750여 자와 목활자 1만 3천여 자가 남아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금속활자는 왕권의 상징이며 국가의 보물과 같은 존재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글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선시대 통치자들에게 한글이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음을 뜻할 것이다.

한글 활자 750여 자 가운데 30여 자는 글자 형태면에서 조선 전기 활자의 특징을 보인다. 이 활자들의 금속 성분도 나머지 활자들에 비해 구리의 성분이 높아, 다른 활자들과 구분된다. 또한 다른 활자들에 비해 높이가 높으며, 측면이 수직에 가깝고 바닥이 평평하거나 작은 세모꼴 홈이 파여 있다.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대부분의 활자의 측면은 경사를 이루고 바닥에는 둥근 홈이 있다. 간혹 평평한 활자도 있지만, 이 활자들처럼 정교하게 바닥을 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 전기 언해본의 글자들과 비교해보니 이 활자들은 1455년(세조 1)에 강희안(姜希顔)의 글자체로 만든 을해자로 인쇄한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에 쓰인 한글 활자 즉 을해자병용 한글 금속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이 1461년(세조 7)에 간행 되었으므로 이 활자들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활자들은 한글로 된 금속 활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일 뿐 아니라 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이다.

을해자병용 한글 금속활자를 제외한 나머지 활자들과 일치하는 글자들은 숙종 때 무신자로 간행한 『사서언해(四書諺解)』에 처음 나오는 무신자병용 한글 금속활자이다. 동일한 글자들은 영조 때 간행한 유교 서적의 언해본과 정조 때 간행한 한글 윤음(綸音:왕이 내리는 명령)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백성들을 향해 여러 차례 윤음을 내렸다.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한데, 정조 때 간행한 윤음에는 반드시 언해본이 붙어 있다. 백성들에게 직접 본인의 뜻을 전달하려는 정조의 의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여기에 쓰인 한글 활자들은 무신자와 함께 사용되었던 금속활자 외에는 목활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목활자 가운데는 정조의 명으로 간행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에 사용된 목활자가 있다. 이와 함께 1792년(정조 16) 교서관인서체자로 찍은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에 사용한 한글 활자가 남아 있다. 이 활자들은 학부(學部)에서 책을 간행할 때 등 이후 언해본을 편찬할 때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을해자비용 한글 금속활자



그림 13 무신자비용 한글 금속활자

6.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사용하다-나무 활자

임진왜란으로 통치 기반이 되었던 수많은 서적이 불에 타고 사라지자, 조선의 통치자들은 국가 기반의 재정비를 위해 새로 책을 만드는 일을 급선무로 생각했다. 책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야 했지만, 당시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금속활자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전에 만든 중요한 금속활자의 글자체를 모방해서 나무로 활자를 만들었다.

조선 왕실에서는 이 외에도 특별히 나무로 특정의 글자체로 활자를 만들기도 했는데, 왕실에서 불경을 찍기 위해 만든 활자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나무활자는 금속

활자가 부족할 경우에 수시로 만들었다. 나무는 금속에 비해 재료를 구하기 쉽고, 필요할 때 즉시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활자는 민간에서도 많이 만들어 사용했으므로, 종류가 다양하며, 글자체도 다양하다.

나무활자는 직접 인쇄를 위해 만들기도 하지만, 금속활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금속활자를 주조하려면 먼저 나무로 금속활자의 모양과 똑같은 활자를 만든다. 이것을 모형(母型), 어미자 또는 모자母字라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목활자 가운데는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형이 일부 남아 있다. 이 활자들은 실제 금속활자와 모양이 거의 같다.

오늘날 자주 쓰이는 글자를 하나의 단어로 등록해서 사용하듯 조선시대 활자에도 두 글자 이상을 연결해서 만든 활자들이 있다. 이를 연자활자(連字活字), 연각활자(連刻活字)라고 한다. 한글 금속활자 가운데 '口고'와 같이 연자활자로 만든 예가 보이지만, 대부분 연자활자는 나무로 만들었다.

한편 질그릇을 만드는 차진 흙을 빚어 만든 도활자(陶活字)도 일부 남아 있다. 편자를 알 수 없는 『동국후생신록(東國厚生新錄)』에 이재항(李載恒)이 황해도 해주 병영에서 만든 도활자 제조법을 소개했다. 현재 도활자로 간행된 책으로 거론되는 『삼략집해(三略集解)』(1722년 간행) 등인데, 이 책들의 글자체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활자의 글자체는 다르다.



그림 14 금속활자의 모형으로 사용한 목활자와 금속활자(정면, 측면, 뒷면)

7. 활자 보관의 수수께끼를 풀다-활자장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활자와 함께 이 활자를 보관했던 활자장(活字藏)들과 서랍들이 남아 있다. 활자장은 크게 3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짜임이나 형태, 나무의 재질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공통적으로 서랍을 끼우는 서랍장의 형태인데, 서랍은 좌, 중, 우의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은 12~14개의 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서랍의 숫자는 36~42개이다. 이 중 아래 2~3개의 단은 다른 단들에 비해 높으며, 내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칸으로 구획했다. 이런 형태의 서랍은 정간판(井間板)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위쪽 서랍들은 아래쪽에 비해 얇으며, 원래는 내부에 칸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정형이었다. 이런 서랍을 설합(舌盒)이라고 불렀다. 이런 종류의 서랍장은 조선시대의 다른 가구에서 비슷한 형태를 찾아볼 수 없어 활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활자는 수량이 많고, 무게는 무거운 편이며, 크기가 작다. 이런 활자를 수시로 넣고 빼기 좋게 고안한 형태인 것이다.

이 활자장에 활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관했을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이 활자들의 글자별 수량을 기록한 자보(字譜)인 『규장자수(奎章字數)』, 『신정자수(新訂字數)』, 『실록자수(實錄字數)』, 『위부인철목자수(衛夫人鐵木字數)』, 『주자목록(鑄字目錄)』, 『생생자보(生生字譜)』, 『한구자수(韓構字數)』가 남아 있다. 이 자보들은 『생생자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7장(藏)으로 나누어 각 장에 속하는 글자를 나열하고 글자마다 수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장별로 보관한 활자의 수자를 기록했다. 이 자보와 활자장 서랍에 표시된 여러 기록들을 바탕으로 활자 보관방식을 조사하여 활자의 분류 보관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생생자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보들의 한자 분류, 정리 방식은 오늘날 통용되는 일반적인 자전(字典)의 방식과 다르다. 자전의 부수가 214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달리 이들 자보에 기록된 부수는 105~109개까지 다소 차이가 있지만, 214부수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부수의 배열 방식도 자전에서 볼 수 있는 1~17획까지 순서대로 되

어 있지 않다. 부수의 순서는 자보마다 차이가 있지만, 옥부玉部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부수별 글자의 배열순서 역시 자보마다 조금씩 다른데, 획수의 순서에 따라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일하다.

일반적인 한자 분류 방식과 다른 이런 분류 방식은 글자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많은 활자를 빼고 넣어야 했던 사람들, 더구나 글자의 의미에 충분히 능통하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글자의 분류 체계가 간단한 편이 효율적이다. 또 글자가 속한 부수를 가능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분류 방식은 조선시대에 활자 인쇄에 관여한 사람들이 만든 독창적인 방법으로, 어떤 분류법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활자를 보관할 때도 내부에 칸살이 있는 정간판과 얇고 칸살이 없는 서랍(舌盒)으로 나누어 보관했다. 정간판에는 해당 칸에 들어갈 글자가 표시되어 있어, 자주 쓰는 글자들은 여기에 글자별로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랍에는 칸이 없고 바닥에 해당 부수의 글자들을 형태별로 나누어 보관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표시들이 있다. 글자당 제작 수량이 적은 활자는 같은 부수의 글자들을 획수별이 아닌 형태별로 분류하여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정리자장



그림 16 정리자 정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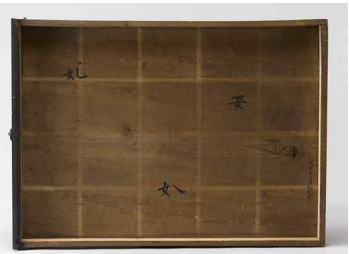


그림 17 한구자 서랍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

박수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

박수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국가를 운영해 온 조선은 18세기 이후부터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중국과 서양의 신문화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연구하여 근대 문화의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정조 사후 세도정치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개혁의 시기가 늦추어지고 사회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즉위한 고종은 1876년 개항을 하고 1880년 12월에 외교·통상업무를 강화하고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여 개화를 주도하였다.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에 의한 침탈이 자행되었는데,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의 주목을 받은 조선은 국제관계에서 독자적이며 근대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랜 기간의 사대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강한 제국의 건설을 꿈꿨던 고종은 경운궁慶運宮을 대대적으로 증축하여 제국의 터전을 마련하고 조선 세조 이후 폐지되었던 제천의례祭天儀禮를 드리기 위해 환구단圜丘壇을 다시 건설하였다. 1897년 연호年號를 광무光武,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정하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대한제국 선포를 전후하여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전면에서 근대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미국·유럽을 통해 전기·철도·우편·금융·자동차·건축·신문·교육·의료·복식 등의 신기술과 문화체계가 유입되었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910년 침략적 제국주의자에게 국권을 빼앗

기고 말았다. 국권피탈 이후 대한제국 황실 일원들은 일제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으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으며, 광복된 이후에도 조국에 한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떠돌며 외로운 생활을 하는 운명에 처했다.

이렇듯 대한제국의 역사는 짧게 끝났으나 제국을 건설하여 세계 선진 국가를 이룩하려고 했던 노력과 경험 덕택에 일제식민지배하에서도 민족적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광복 후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1. 군사제도의 변화

타의에 의한 개항 이후 조선왕조는 불공평한 조약을 연달아 맺으면서 군의 근대화와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1876년(고종 13)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여 군사 제도 운용 전반을 총괄하게 하였으며 1881년(고종 18)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여 군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자 수도 방위의 강화를 위하여 전·후·좌·우·별영의 친국 5영을 두었다. 또한 1895년(고종 32) 서울에는 궁성 수비와 도성 경비를 위하여 친위대親衛隊와 시위대侍衛隊를 두었으며, 강화·수원·대구·전주·평양 등 주요 도시에 진위대鎭衛隊를 설치하여 총 2만 여 명의 병력을 운용하였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1898년(광무 2)에는 황제가 대원수大元帥가 되어 친히 육군과 해군을 총괄하였다. 1899년(광무 3)에는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여 중앙군과 지방군을 지휘·감독하고 국방에 관한 명령을 관장하는 등 황제의 군권을 강화하였다.

2. 근대적 관제 개편

조선왕조는 국내외의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근대적인 사업수행을 전담할 전문부서를 증설·세분화하는 관제 개혁을 수차례에 걸쳐 단행하였다. 기술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을 대폭 증설하였다. 조선시대 행정 구조는 의정부와 그 이하 육조(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체제로 이루어졌으나, 1894년 갑오개혁을 시작으로 국가사무와 왕실사무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나누어 담당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는 내부·외부·탁지부·법부·학부·군부·농상공부 등이 있었다. 특히 사법기능이 전문화되고 세분되었으며 외교업무의 중요도가 상승한 것이 특징이었다. 궁내부는 왕실 사무뿐만 아니라 철도 등의 개혁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구를 두어 근대화 정책을 이끌어 나갔다.

3. 새로운 문물의 도입

개항 이후 조선왕조는 급속도로 서양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각종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여 서양의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였고, 양잠, 방직, 광산 등에 근대식 기계를 도입하는 한편 경성의학교, 철도 학교, 광무학교 등 각종 기술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박문국博文局, 기기창機器廠, 전환국典園局 등 근대산업시설을 갖추어 신문을 발간하고 신식무기를 제조하였으며 근대화폐를 주조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적인 통신제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우편과 전신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1884년(고종 21) 우정총국郵政總局의 개설, 1885년(고종 22) 국내의 전신선의 개통으로 전기사업이 추진되어 1887년(고종 24)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로 경복궁 건청궁乾淸宮에서 전등이 점화되었다. 그러나 1905년 4월 1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통신권을 빼앗겨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우편·통신제도는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1899년(광무 3)에는 전차가 개통되는데, 한성에 전차가 달린 것은 일본 도쿄東京보다도 3년 먼저였다. 같은 해 한성과 인천을 잇는 철로가 개통되는 등 근대적인 교통수단이 도입되어 한성의 교통체계는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서구 문물과 제도의 도입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도구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으나 근대 국가로의 발전에 대한 조선왕조의 열망과 노력은 사회 다방면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 근대기 전기·교통 연표

- 1887.03(음) 경북궁 건청궁乾淸宮에 최초의 전등 가설
- 1894.06(음) 창덕궁 전등 점화
- 1896.07 한국 최초의 철도규칙 제정, 공포
- 1897.03 인천 우각현에서 경인철도 공사 착공
- 1898.01 한성전기회사 건립
- 1899.05 동대문~흥화문 구간 최초의 전차 개통
청량리(홍릉)~서대문 구간 전차 개통
- 1899.09 경인선(인천 제물포~노량진) 개통
- 1899.12 종로~남대문(송례문)~용산 구간 전차 개통
- 1900.04 민간 최초 종로에 세 개의 가로등 점등
- 1900.07 한강철교(노량진~용산) 준공으로 경인선(서대문~인천) 구간 완전 개통
남대문~서대문 구간 전차 개통
- 1900.09 서북철도국 설치
- 1902.05 한국정부에서 경의선(한성~개성)부설 착공
- 1905.01 경부선(서대문~부산 초량)
- 1906.04 경의선(용산~신의주) 개통

◎ 근대기 우편·전신 연표

- 1882.12(음) 우정사 설립
- 1884.03(음) 우정총국 설치
- 1884.10(음) 근대우편업무개시(한성~인천)
- 1884.10(음)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 폐쇄
- 1885.08(음) 한성~인천 간 전신선 개통, 한성전보총국설 개국
- 1885.10(음) 서로전신선(한성~인천, 한성~의주)준공, 개통(지도에 노란색 표시)
- 1885.10(음) 최초의 국제전신 업무 개시
- 1888.05(음) 남로전신선(한성~부산) 개통(지도에 파란선 표시)
- 1891.06(음) 북로전신선(한성~원산) 개통(지도에 분홍선 표시)
- 1894.06(음) 전우총국을 공무아문 역체국과 전신국으로 기구 개편
- 1895.06(음) 우편업무 재개
- 1896.10 궁내부 행정전화 개통
- 1900.01 국제우편업무 개시, 만국우편연합(UPU)가입
- 1902.03 한성~인천간 시외전화 개통

4. 외교정책의 변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급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3국의 정세도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임진왜란 이후로 굳건히 쇄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조선도 근대화의 격랑 속에 예외일 수 없었으며, 1875년(고종 12) 일본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1876년(고종 13)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국제 질서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여 여러모로 불합리한 첫 국제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맺은 조선 정부는 곧 근대적인 국제법을 익히고 기존 국제 조약의 사례를

연구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 체결을 준비하여 1882년(고종 19) 서양 열강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맺었다. 이 역시 불평등 조약에 속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전례 없이 관세자주권關稅自主權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일본과 맺은 조약보다는 발전된 형태였다. 조선 정부는 그 뒤 잇달아 영국, 독일, 러시아 등 9개국과 조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세계 외교 무대에 등장하였다.

또 조선 정부는 외국의 선진제도와 문물을 배우기 위해 국외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직후, 조선은 일본의 정세와 변화상을 살피기 위해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들이 귀국후 보고한 일본의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기술 문명은 조선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후 조선은 새로운 국제질서와 신문물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일본과 청에 재차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점차 외교 범위를 서양까지 확대하였다.

사절단들은 선진 문물을 조선 정부에 자세히 전하였으며, 1880년대 이후에는 이들이 습득한 근대적인 식견을 중심으로 국내 개화정책이 추진되어 나갔다.

국외사절단 파견 일람표

일본	1876. 04(음) 1차 수신사修信使 1880. 05(음) 2차 수신사修信使 1881. 04(음)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 1881. 08(음) 3차수신사修信使 1882. 08(음) 4차수신사修信使
중국	1881.09(음) 영선사領選使
미국	1883.07(음) 보빙사報聘使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변화로 드디어 조선은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이 국제무대 사회에 등장한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세계만국박람회”였다. 19세기 말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규모의 만국박람회를 열어 자국의 산업발달을 세계에 과시하고자 하였으며, 동양의 나라들을 만국박람회를 통해 서양에 자국을 알리고 세계를 체험하고자 하였다.

조선이 박람회 통해 알려진 것은 1883년 보스턴 기술 공업 박람회에 보빙사가 조선의 물품을 소개하면서 부터로, 이후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는 소규모로 참가하였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는 본격적으로 전시관을 세우고 대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독립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1902년 하노이, 1905년 오사카 박람회에도 참가하였다.

고종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국내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1902년에는 농상공부에 임시박람회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1903년 1월과 6월에는 소규모 박람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고종의 박람회 참가에 대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을 해외에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며, 서구의 문물들을 좀 더 빠르게 접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려 했던 고종의 적극적인 의지였다.

또 조선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쓴 책을 통해서도 조선은 점차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세기말 조선에 온 서양인들은 왕실의 고문이나, 선교사, 사신으로서 조선의 정치·사회 문제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당수의 기록들을 남겼다. 외교관 샌즈의 『조선비망록Undiplomatic Memories』, 선교사 험버트가 남긴 『대한제국 멸망사The Passing of Korea』,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 HER NEIGHBOURS』 등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책들이다. 서양인들의 기록은 다소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묘사한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과 풍습은 대한제국이 지녔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들의 기록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였던 한국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각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5. 대한제국의 탄생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러시아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은 1897년 2월 제국주의 열강의 침공과 패권 다툼 속에서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의 의지를 다지며 경운궁慶運宮으로 환궁하였다.

고종은 경운궁을 대한제국의 정궁正宮으로 하여 황도皇都의 중심으로 삼아 황제권의 확립과 근대국가 건설을 계획하였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서구열강의 침입과 압박 속에서 자주독립과 부국강병한 제국의 건설을 꿈꾸며 환구단圜丘壇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마침내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大韓帝國’이 탄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있을것이다.”

『고종실록』 권36, 34년(1897) 10월 11일

고종은 황제로 등극한 이후, 명성왕후를 황후로 책봉하고 황제국의 예로 국장을 치렀으며 왕태자와 왕태자비를 황태자와 황태자비로 책봉하였다. 또한 선대 국왕을 황제로 추숭追崇하는 등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 의례를 재정비하여 황실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대한제국의 선포와 건립 일지는 아래와 같다.

대한제국 선포 일지

1896년	2월	16일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천어遷御를 하고자 경운궁 수리를 명함	
1897년	2월	20일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어遷御	
	5월		이최영, 권달섭, 임상준, 강무형 등이 황제로 즉위할 것을 청함	
	6월	3일	새 시대의 국가전례國家典禮를 정비하기 위해 사례소史禮所 설치	
	8월	14일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함	
	9월		권재형, 유기환, 심노문, 김두병, 김재현 등이 황제로 칭할 것을 청함	
	10월	1일		환구단 위치를 회현방 소공동으로 선정하고 다음날부터 공사
		2일		심순택, 김선주, 곽선곤, 정재승 등이 황제로 칭할 것을 청함
		3일		황제 즉위, 황후와 황태자 책봉 길일(10월 12일) 선정
		7일		경운궁 중심 전각인 즉조당을 태극전太極殿으로 개칭
		9일		종묘와 사직단의 위패를 태사太社, 태직太稷으로 격상
		11일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제정
		12일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 궁으로 돌아와 태극전에서 황후와 황태자를 책봉
		13일		황제 즉위와 국호를 대한으로 정한 배경 등을 조칙으로 발표
		14일		왕태자비 민씨를 황태자비로 책봉
	20일		종묘, 경기전 등의 기물과 의장들을 천자의 의식대로 고치라고 명함	
	11월	22일	명성황후를 홍릉洪陵에 장례	
	12월	2일	황제즉위일인 10월 12일을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로 정함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반포하다.	
1900년	12월	7일	태조, 장조, 정조, 순조, 문조를 황제로 추존	
1902년	8월	17일	이강李堉, 이은李垕을 의친왕義親王, 영친왕英親王으로 책봉	
	5월	4일	기로소에 입소	
	9월	20일	10월 18일로 계획했던 고종 즉위 40년 기념행사를 내년으로 연기	
	12월	3일	고종의 망육순望六旬을 기념하는 외진연을 거행	

6. 대한제국으로의 변화상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고종은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각종 의장과 제도 등의 국가 의례를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높여 재정비하였다. 따라서 국호와 연호도 자주적 의미가 강한 ‘대한大韓’과 ‘광무光武’로 바꾸고, 궁의 보개나 답도 등의 문양을 봉황문양에서 용문양으로 바꿨다. 의복과 의장·의례 등에는 황실을 나타내는 황색을 사용했다.

특히 제후국에서 천자의 나라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의 변화가 생겨났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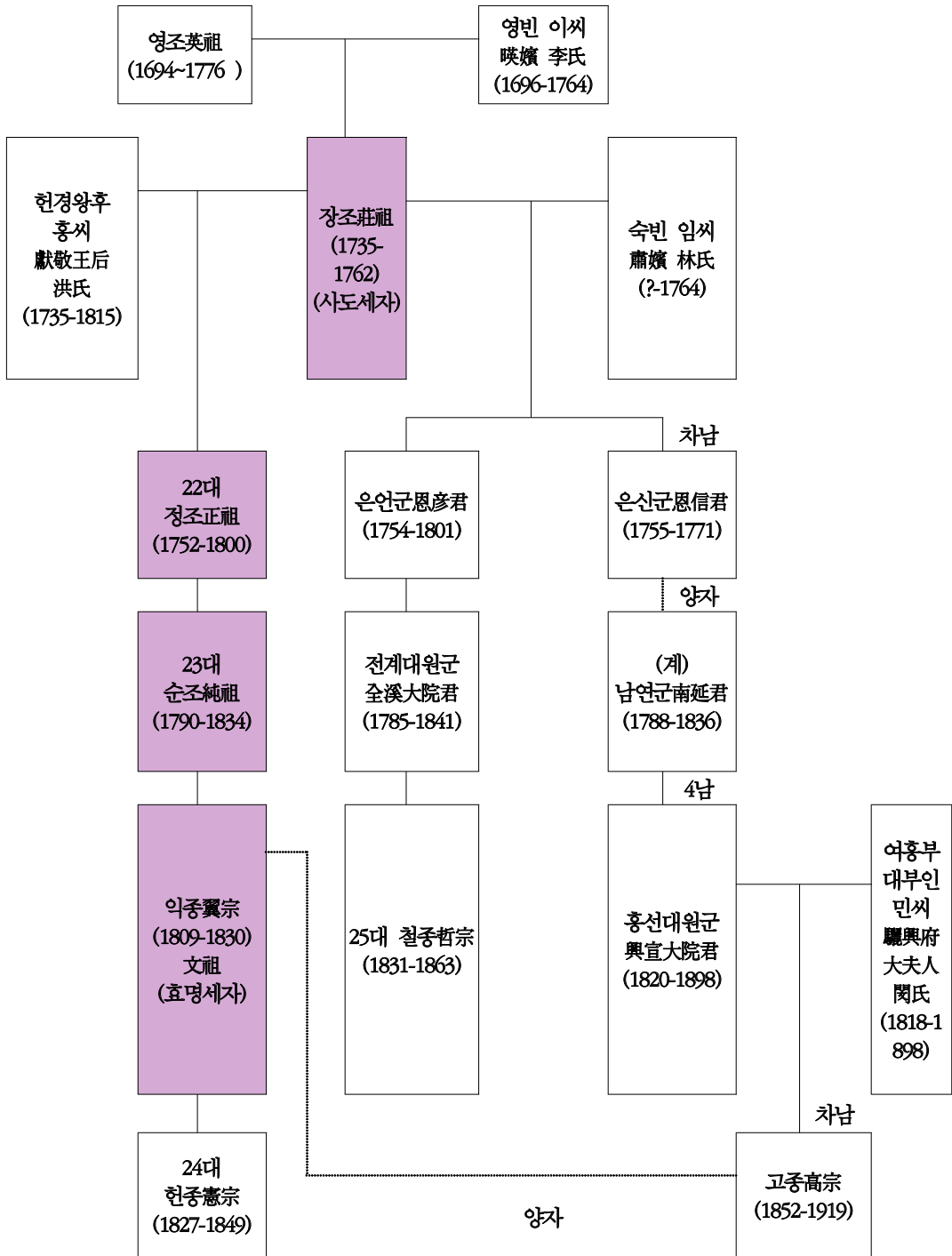
		조선	대한제국
용어	황제 칭호	왕王	황제皇帝
	황제 존칭	전하殿下	폐하陛下
	황제 자칭	과인寡人	짐朕
	황태자 칭호	왕세자王世子	황태자皇太子
	왕자 봉작명	대군大君, 군君	친왕親王
	山呼萬歲	천세千世	만세萬歲
	명령문	교敎	칙勅, 조詔
	사직	사직社稷	태사太社, 태직太稷

또 대한제국의 선포와 발맞추어 국가의 문장을 공식적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화문으로 불리는 오얏꽃 문장이다. 오얏꽃(梨花) 문장은 대한제국 초기에는 황실의 문양인 동시에 국표國標로 사용되었다. 오얏꽃은 다섯 개의 꽃잎마다 세 개의 꽃술을 배치한 형태로, 빛깔은 황제국을 뜻하는 황금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1892년 주화에서 오얏꽃 문

장이 처음 사용된 이래 황실에서 보내는 초청장, 우표, 훈장 등에 채택되기 시작했으며, 1900년 공포된 「훈장조례」에서는 오얏꽃 문장을 ‘국문國文’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표로 사용되었던 오얏꽃 문장은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로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그 의미가 점점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순종·영친왕을 비롯한 왕실 일가는 이왕가李王家로, 의친왕 이강·이우 등은 공족公族으로 대우 받았다. 오얏꽃 문양 역시 단순히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각 왕가별로 오얏꽃 문양에 차이를 두어 사용되었다.

새로운 제국이 선포됨에 따라, 1대 황제의 선왕 4대와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등 5대조를 황제로 추존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고종의 선왕으로서 황제로 추존된 4대 왕을 왕계도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또한 1900년에 고종 후궁 귀인 장씨의 아들 이강李綱(1877~1955)과 순헌황귀비 엄씨의 아들인 이은李垠(1897~1970)에게 각각 ‘의義’와 ‘영英’의 봉호封號를 내리면서 ‘친왕親王’으로 책봉하고 책문과 금보, 칠장복七章服을 주었다.

조선은 중국의 제후를 자처했으므로 왕실봉작제도도 제후국체제를 모방하여 왕의 적장자를 세자世子로 책봉하고, 그 이외의 아들들은 대군大君, 군공으로 봉작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성립 후 왕실봉작제 또한 황제체제에 맞도록 변경하여 황제의 적장자를 태자로 책봉하고 그 이외의 아들들은 친왕으로 봉작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서양관복의 도입이 활발하였다. 군복은 계급에 따라 별 개수와 소매부분의 ‘인사’자형 계급장수장袖章수가 달랐다. 원수부의 대원수인 황제는 11줄, 원수인 황태자는 10줄이었고, 대장은 9줄, 부장副將은 8줄, 참위參尉는 1줄로 수가 달랐다. 현재 남아 있는 사진들 속에서도 고종, 순종, 영친왕 등이 황실의 군예복을 차려입고 위엄을 갖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1900년 친왕제도가 생긴 이후 궁내부에는 친왕부親王府가 설치되어 친왕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였다.

1902년은 고종이 즉위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자 고종이 51세가 되어 육순을 바라보는[望六旬] 해였다. 고종에게 새로운 존호를 추가로 올리고, 51세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드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진연進宴을 베풀었으며, 어진御眞을 제작하였다. 아울러 대한제국과 황제의 위상을 알리고자 세종로 거리에 즉위 40년을 기념하는 청경비를 건립하고, 기념장記念章, 기념우표 등이 발행하였다.

7.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제국 황실의 운명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국권이 피탈되자 대한제국의 황실은 일본 총독부에 의해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고 일본 황실의 일부로서 관리되었다. 황실의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조선총독부 이왕직李王職으로 바뀌었고, 고종 황제를 비롯한

황실의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치밀하게 감시당하였다. 1907년 강제 퇴위 당한 고종 황제는 ‘덕수궁 태왕 전하’로 불리며 덕수궁에서 쓸쓸하게 생활했고, 그 뒤를 이었던 순종 황제는 창덕궁에서 유쾌 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은 일견 대한제국 황실을 적절하게 대우하는 듯 선전하였지만 이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울분을 가라앉히려는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대한제국 황실의 미혼자들은 전통이나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본으로 보내져 일본의 귀족들과 혼인하도록 강제되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李垕(1897~1970년)은 11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나 일본 귀족의 딸인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이후 이방자李方子)와 혼인하였으며, 의친왕 이강李堯(1877~1955년)의 아들 이우李鏞(1912~1945년)도 일본인 여성과의 혼인이 추진되었으나 본인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덕혜옹주 역시 결국 쓰시마의 화족 華族 소 다케유키宗武志(1908~1985년)와 혼인하게 되었다.

광복 후 귀국을 희망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일본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영친왕과 덕혜옹주는 1961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언론인 김을한 金乙漢(1906~1992년)의 요청을 받아 한국을 승인함으로써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62년 귀환한 덕혜옹주는 치매를 앓는 중년의 여성으로 마중 나온 어린 시절의 유모 변복동 씨 등 주변 인물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1년 뒤 돌아온 영친왕은 뇌졸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대한제국의 후손으로서 마지막으로 황태자와 옹주의 작위를 받았던 남매는 돌아온 후 병상 생활을 지속하다 각각 1970년과 1989년에 세상을 떠났다.

국립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 박물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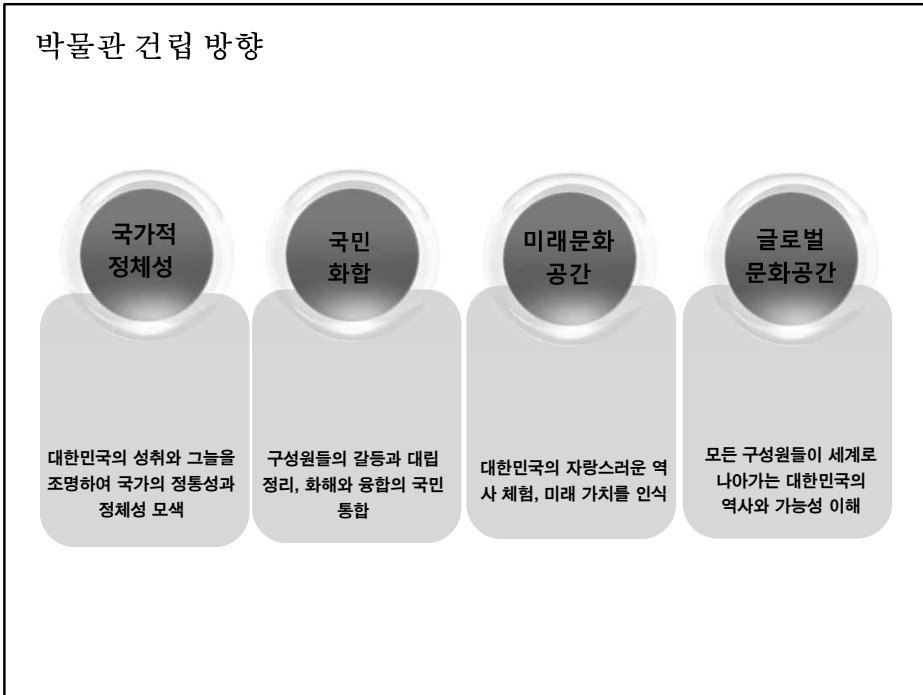
연혁

- 08.08.15. 건립 공표
- 09.04.16.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출범
- 09.05.24.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추진단 발족(2과 12명)
- 09.10.1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명칭 확정
- 09.09.09~10.1. 건립기본계획 수립연구
- 10.03.12.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0.03.12~2012.12. 건축설계 및 착,공사
- 12.12.26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시설 현황

- 건립규모 : 부지면적 6,445㎡ (1,950평),
건축연면적 10,734㎡ (3,247평)
- 건립형태 : 옛 문화부 청사 본관 리모델링 + 별관부지 일부 증축
- 주요시설 : 전시(상설4, 기획2), 수장, 교육, 연구, 사무, 부대시설 등
- ※ 전시공간 3,090㎡, 수장공간 434㎡, 교육공간 506㎡

박물관 건립 방향



박물관의 추진전략

21세기 새로운 박물관 개념을 위한 모델 수립



2. 전시공간 및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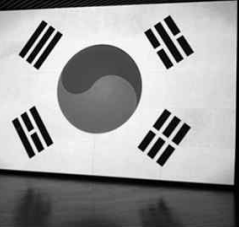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상설전시실 (3층)로 이동



상설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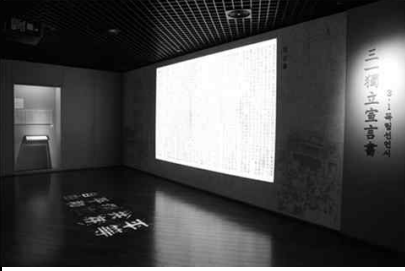

- 제1전시실
- 대한민국의 태동 (1876~1945)
- 제2전시실
-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1945~1961)
- 제3전시실
-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1961~1987)
- 제4전시실
-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1988~현재)







1	제1전시실(3층) 대한민국의 태동	
주제	프롤로그 영상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p>애국가를 배경음악으로 위성에서 바라본 지구, 지구에서의 한반도로 zoom-in, 대한민국의 영토의 동서남북단을 영상으로 조명하며, 반구로 동글게 처리된 영상면에 태극기가 그려지면서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영토(동서남북) • 대한민국의 애국가 • 대한민국의 태극기



2	제1전시실(3층) 대한민국의 태동	
주제	태극기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요소의 하나인 태극기를 주제로 각 태극기마다의 상징과 의미를 전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니태극기(가장 오래된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광복군 태극기 베트남 파병시 태극기 태극기 도안


3	제1전시실(3층) 대한민국의 태동	
주제	안중근의사 유묵/일제 강점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호)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김 일제강점기의 강압과 수탈을 좁고 낮은 침묵의 터널 공간 및 어둔 조명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중근의사 유묵 황국신민서사 창씨개명 호적부 전쟁강제동원 관련 자료


4	제1전시실(3층) 대한민국의 태동		
주제	3.1운동과 독립선언서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빙텍스트 기법(바닥에 있는 글자를 밟으면 벽면의 해당 위치로 글자가 이동)을 활용하여 독립선언서에 담긴 자유, 평등, 독립, 공존, 평화 등 근대사상의 주요한 가치들을 살펴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선언서



5	제1전시실(3층) 대한민국의 태동		
주제	8.15 광복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에 연출되어 있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모자이크 사진과 8.15 글자를 통해 8.15 광복을 떠올림 • Two-layer 영상(두 개의 영상면)을 통해 광복을 이루는 과정을 입체 영상으로 감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모자이크 벽면 사진(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사진과 이름) • 광복을 이루는 과정 동영상

6	제2전시실(4층)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주제	대한민국 정부수립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m의 매직비전(벽면 영상과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입체영상 구현)을 통해 광복 이후 남북분단, 남한만의 총선거 과정, 제헌국회, 정부수립 과정을 영상으로 감상하도록 함 • 벽면 진열장을 통해 실물자료 전시
		



7	제2전시실(4층)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주제	6.25전쟁과 전후 복구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 과정과 복구 과정을 실물자료, 영상, 모형 등을 통해 전쟁의 참상, 피해 등을 살펴봄 • '메리디스 빅토리호' 대형 모형연출을 통해 흥남철수 관련 상황을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함 * 한 척으로 가장 많은 사람(14,000명)을 구조해 낸 배(기네스 기록으로 등재되어 있음), 3일간의 항해에 다섯명의 아이가 태어남(김치1~5)
		



8	제2전시실(4층)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주제	국방의 기초확립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전쟁 후 국방력 강화와 외교안보를 위해 추진하였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 라인 등을 실물자료를 통해 살펴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문서(1954) 육군사관학교 사진첩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이승만 라인 / peace line) 독도 포함 지도(관보)


9	제2전시실(4층)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주제	4.19혁명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의 진열장과 벽면 스퀘어 연출 및 동영상 등을 통해 4.19 혁명이 민주화의 첫걸음이었음을 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사오입개헌 관련 자료 3.15 선거 포스터 4.19 일기 4.19 부상자 명단, 사진첩 등


9	제2전시실(4층)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주제	제2공화국과 5.16군사정변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9혁명 이후 장면 총리(대통령 윤보선)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 출발(1960.10.1) • 박정희를 비롯한 군 내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1961.5.16) • 대통령 중심제 채택, 박정희의 대통령 당선제3공화국(1963.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 수립 기념우표(제2공화국) • 경제부흥호소 전단 • 경제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 혁명공약


10	제3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경제개발의 본격 추진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에 연출된 구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미대사관과 쌍둥이 건물, 경제성장의 사령탑 역할 등)을 설명 • 경제개발계획, 한일회담 등 실물자료 중심으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준공식 팸플릿 • 장관실에 걸려 있던 기념판 • 경제개발계획 보고서 • 경제개발5개년계획 포스터 • 한일회담 오히라 메모 • 6.3사태 데모주도자 계보도


11	제3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한일회담 산업역군, 베트남파병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회담, 파독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파병, 중동건설 근로자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자돈 마련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던 해외 산업역군의 모습을 모형과 설명
		


12	제3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수출'과 '건설'이라는 컨셉으로 컨테이너가 선적된 모습과 H빔의 구조물로 공간연출함 • 대한민국 1호(전자, 자동차, 조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일군 기적(고속도로, 제철소 건설 등)으로 전시아이템 설정
		


13	제1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성장의 그늘-열악한 노동환경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의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힘들게 일해야만 했던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당시 봉제공장 재연 연출을 통해 체험하도록 함 • 전태일 관련 스토리 영상과 함께 노동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영상으로 소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신동, 청계천 봉제공장 작업장(1.6m 높이의 낮은 작업장과 다락방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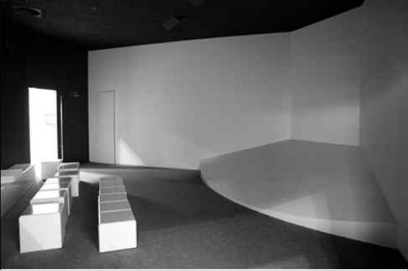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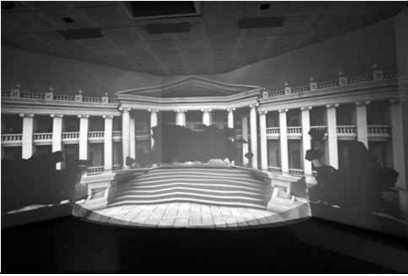
14	제3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새마을운동과 대중문화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친근한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클레이에 니메이션(1'50")모형과 영상으로 구성함 • 극장간판 제작자가 재현한 극장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 클레이에니메이션 모형 및 동영상 • 새마을운동 관련 실물자료 • 극장간판 및 영화포스터 등



15	제3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민주화 운동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과정을 실물자료와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이해함 •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과 정신을 상징화하기 위해, 낮은 조명과 일관된 진열장, 벽면 그림 연출 등으로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선개헌, 유신 반대자료 • 1980년대 광주민주화 운동 자료 • 전단지 및 기록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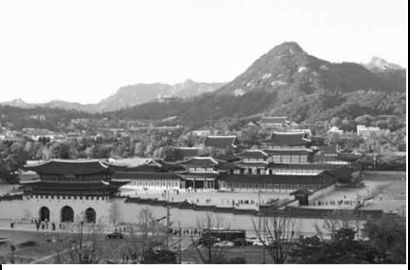
16	제3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재임기간 등을 담고 있는 동판,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상 등을 보여주는 동영상 구성 • 전면의 투명창을 통해 경복궁 일대 조망 • 대통령 집무 책상 및 연설대 체험, 기념사진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집무 책상, 연설대 재현 • 역대 대통령 초상화

17	제4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주제	민주주의 진전과 시민정치문화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과정을 실물자료와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이해함 •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과 정신을 상징화 하기 위해, 낮은 조명과 일관된 진열장, 벽면 그림 연출 등으로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선개헌, 유신 반대자료 • 1980년대 광주민주화 운동 자료 • 전단지 및 기록물 등

18	제4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스포츠 강국, 코리아디아스포라. 다문화사회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통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표현 • 스포츠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표현

19	제4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mapping 영상(2개의 벽면, 바닥 등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상면을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과정을 이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 6.25전쟁 • 경제발전과 민주화 • 세계 속에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G20 영상으로 마무리)

20	제4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통일의 염원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진열장에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진 및 이미지 진열 • 벽면에 한반도 지도와 세계 지도가 설치되어 있고, 한반도 및 대륙 철도망이 점선 형태로 표시되어 통일 이후 활동공간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 6.25전쟁 • 경제발전과 민주화 • 세계 속에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G20 영상으로 마무리)

21	제4전시실(5층)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주제	전자 방명록/옥상(8층) 전망	연출 및 주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등불밝히기' 키오스크에서 사진촬영, 메시지 입력, 이메일 전송, 사진출력, 대형 화면에 희망등불 띄우기 등을 체험함
		8층 옥상에서 바라본 경복궁 가을 모습

